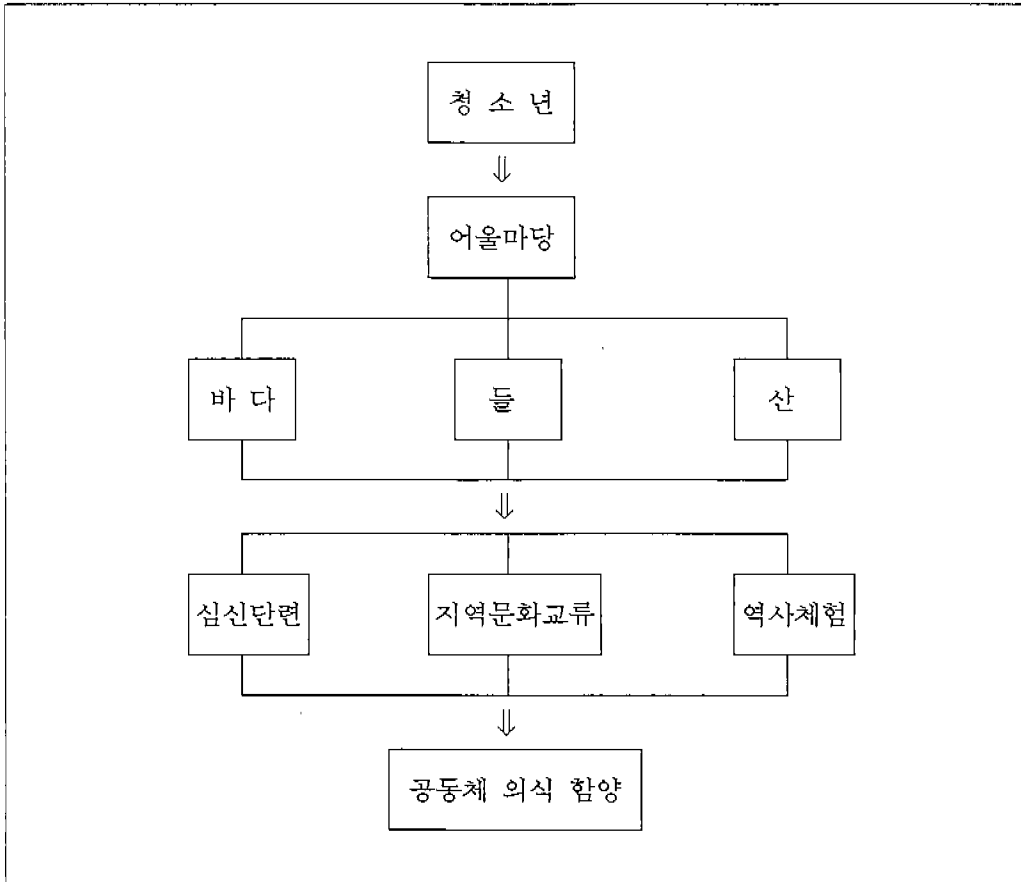


I. 사 업 개 요

1. 목 적
2. 기 본 방 향
3. 사 업 내 용
4. 활 동 조 직

I. 사 업 개 요

1. 목 적



<그림 I-1> 팔도청소년어울마당의 목적

- 팔도청소년어울마당은 팔도청소년들이 어울마당활동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지역간의 문화를 교류하며 살아숨쉬는 역사체험을 함으로써 상호간에 이해를 확대해 나갈 뿐만 아니라 모두가 같은 민족의 뿌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둔다.

2. 기본방향

가. 우리 민족문화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킨다는 역사성을 가진다

- 우수한 우리 전통 수련거리 활동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선조들의 훌륭한 정신을 몸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 팔도청소년어울마당을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함으로써 21세기 통일조국을 준비하는 팔도청소년들의 공동체정신을 함양한다.

나. 전국적인 축제의 마당으로 확대·실시한다

- 전국의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들의 기개와 이상을 마음껏 펼치는 전형적인 축제의 마당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한다.
- 팔도청소년어울마당의 운영 모형을 개발하여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한다.

다. 팔도 지역문화를 꽃피운다

- 팔도 각 지역문화의 계승자인 청소년들로 하여금 직접 자기 지역의 문화를 발굴하며 지역 정서를 반영하는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지역문화의 발전과 동시에 그에 대한 애착심을 심화시키도록 한다.
- 지역의 산과 들, 바다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자연에 대한 친화와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지속적인 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

-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함으로써 팔도청소년어울마당이 발전적으

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

- 청소년들의 어울마당 참여 경험을 해당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 대표수련시설등과 협조하여 철저한 사후 관리를 추진한다.

마.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 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참가 청소년들을 통한 팔도청소년어울마당의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점차적으로 확대한다.

3. 사업 내용

- 1) 명 칭 : '96팔도청소년어울마당
- 2) 주 제 : 한마음어울축제(전통혼례축제)
- 3) 기 간
 - 8월 1일(木)~8월 3일(日)(2박 3일간)
- 4) 장 소
 - 딱따구리수련원(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우고리)
- 5) 참가인원
 - 총 인 원 : 102명
 - 청 소 년 : 82명(전국 각 시·도 남녀 고등학교 1학년생)
 - 지 도 자 : 13명(전문지도자 7명, 보조지도자 6명)
 - 진행요원 : 8명(행사준비단 4명, 행사지원반 4명)

6) 활동내용(<표 I-1>)

구 분	수 련 거 리 명	시간	비고
열림마당	○ 하늘맞이굿	2	공통
축제준비	○ 우리예술익히기 - 풍물, 탈춤, 기천, 강강수월래	4	선택
	○ 모듬별 축제준비	1	선택
축제거행	○ 팔도어울혼례행렬 길놀이 ○ 혼례앞마당 - 개막선언 - 덕담풀이 풍물관굿 - 꽃불밝힘 - 땅술두르기 ○ 혼례본마당 - 오작교다리잇기 - 손씻이 - 맞절 - 잔나눔 - 비나리 ○ 혼례축하마당 - 모듬별 공연 (풍물, 탈춤, 기천, 강강수월래) - 감사의례 ○ 대동한마당 - 염원불올리기 - 강강수월래	3	공통
기타활동	○ 통일기행 - 통일전망대, 기념식수 및 염원돌 올림	3	공통
	○ 팔도민속놀이 - 게줄다리기, 지네발줄다리기, 널뛰기, 단심줄, 비석치기, 돌돌돌기 등	2	선택
	○ 우리먹거리잔치 - 콩국수, 부침개, 떡, 가마솥밥, 화채, 된장찌개 등	3	선택
	○ 기천체조	1	공통
	○ 신나는 물놀이(수영)	1	선택

4. 활동조직

1)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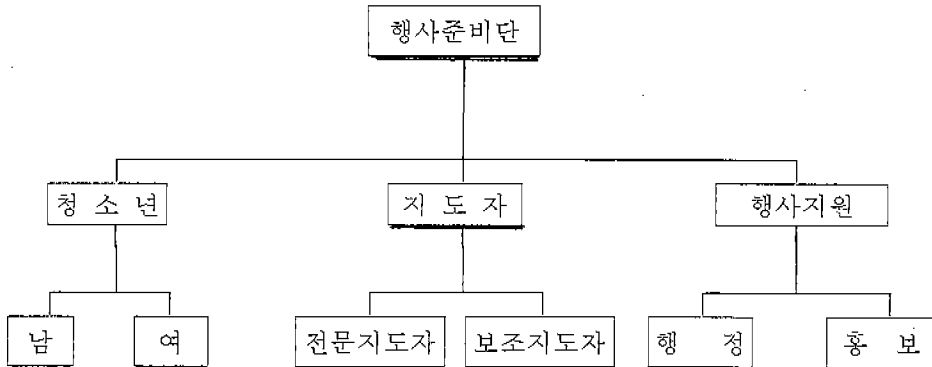
- 팔도청소년어울마당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조직은 ‘팔도청소년어울마당 행사준비단’을 중심으로 하여 ‘청소년반’, ‘지도자반’, ‘행사지원반’의 3대 조직으로 구성한다.
- 팔도청소년어울마당 행사준비단은 단장이 전체 과정을 총괄 지휘하여 어울마당을 기획, 운영, 평가한다.
- 청소년반은 크기에 따라 크게는 2개의 조직, 작게는 8개의 조직으로 나누며 활동 내용에 따라서는 조직 구성을 유동적으로 운영한다.
- 청소년 참가자의 구성은 지역별, 성별을 고려하여 각 시도에서 희망자를 중심으로 무작위로 선발한다.
- 지도자의 조직은 전통수련거리 전문지도자와 청소년 관련학과 대학생이 중심이 되는 보조지도자로 구성한다.
- 행사지원반은 예산, 물품 등을 지원하고 행사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예산반, 홍보부, 기조부 등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 참가인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I-2>

참가인원 현황

구 분	인 원	비 고
행사준비단	4명	단장 1, 교류협력부 3
청 소 년	82명	전국 각 지역에서 추천 선발
전문지도자	7명	전통 수련거리 지도자(신명축제 몽치)
보조지도자	5명	청소년 관련학과 대학생
행사지원반	4명	물품 1, 사진 및 비디오 1, 진행지원 2
총 인 원	102명	

2) 조직구성체계



<그림 I-2> 팔도청소년어울마당 조직 구성 체계

가. 행사준비단

- 단장(기획조정실장), 교류협력부 3명 등 총 4명으로 구성한다.
- 팔도청소년어울마당의 계획을 수립한다.
- 팔도청소년어울마당에 참여할 청소년을 선발하고, 전문 및 보조지도자를 채용한다.
- 전문지도자와 함께 행사 기간 중 수행할 수련거리를 개발한다.
- 팔도청소년어울마당의 전체 운영을 총괄한다.
- 팔도청소년어울마당의 진행과정 및 진행이 끝난 후 이를 평가하여 다음 계획에 반영한다.

나. 청소년반

① 인원 선발

- 전국 각 시·도 고등학교 남·녀 1학년 학생 82명을 선발한다.

<표 1-3>

지역별 청소년 참가자 현황

(단위 : 명)

지	역	참가 청소년 수	
		남 자	여 자
서	울	18	16
경	기	3	12
강	원	1	1
대	전	2	0
충	남	1	3
충	북	1	2
부	산	5	2
대	구	2	0
경	북	6	0
전	북	2	4
전	남	0	1
소	계	41	41
총	계	82	

② 조직 구성 및 활동

- 1모듬을 10명 내외로 하여 전체 청소년을 8개 모듬으로 구성한다.
- 각 모듬에 남자와 여자 비율을 5 : 5 정도로 편성한다.
- 모듬은 활동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자율적으로 모든 활동을 실시하도록 한다.
- 자율적 질서유지 및 화합을 도모한다.

다. 지도자반

- 전문지도자
 - 전통 수련거리 운영자 7명으로 구성한다.
 - 행사준비단과 함께 수련거리를 개발한다.
 - 주요 수련거리를 진행한다.

○ 보조지도자

- 청소년 관련학과 대학생 5명으로 구성한다.
- 수련활동 진행을 보조한다.
- 담당청소년의 신상을 파악하고 상담자의 역할을 한다.
- 담당 수련활동의 결과를 정리하고 평가한다.

라. 행사지원반

- 행사 진행을 도와주고 행사에 필요한 물품, 급식 등을 조달하고 청소년들의 위생 및 안전을 관리하며 활동을 기록한다.
- 기조부, 예산반, 홍보부 등 직원 4명으로 구성한다.

<표 1-4> 협조 부서별 참가 인원 및 업무 현황

협 조 부 서	협 조 인 원	주 요 업 무
기 조 부	2명	○ 행사진행 지원 ○ 위생 및 안전 관리 ○ 활동 물품 조달 - 물품 구입
예 산 반	1명	○ 수송 및 급식 담당 - 수송계획 수립 및 실행 - 급식 계획 및 실행
홍 보 부	1명	○ 사진 및 비디오 촬영
계	4명	

II. 사 업 추 진 결 과

1. 활 동 부 문

2. 지 원 부 문

II. 사업추진 결과

1. 활동부문

1) 행사일정(<표 II-1>)

시간	첫 째 날(1일)	둘 째 날(2일)	셋 째 날(3일)
06:00		민족무예 기천체조	
07:00		아 침 식 사	
08:00		우리문화 체험마당1 '팔도민속놀이마당' 우리문화 체험마당2 '우리먹거리 잔치'	김 정 리
09:00			퇴 소 식
10:00	참가자 등록		'통일기행' 통일전망대 방문 (기념 식수 및 올림) 염원들 올림)
11:00			
12:00			점 심 식 사
13:00	숙소배정 점심식사		고향 앞으로
14:00	열림마당 '하늘맞이굿'	신나는 물놀이	
15:00			
16:00	우리에술 알기마당1 (풍물, 탈춤, 기천, 강강수월래)	우리에술 알기마당2 (풍물, 탈춤, 기천, 강강수월래)	
17:00		축제 준비	
18:00	저 녁 식 사		
19:00	'만나서 반가워요' - 만남의 시간 - 축제만들기 준비시간 - 분임토론	'한마음 어울축제' 전통혼례 거행	
20:00			
21:00			
	정 리 시 간		
22:00	취 침		

2) 일별 일정표

<표 II-2> 제1일(8월 1일 목요일)

시 간	활 동 내 용	장 소	활동인원	준 비 물
10:30~	집 결 등 록 이 동(레크레이션)	조흥은행 본점앞	82	개인준비물 마 이 크
13:00~	수련원 도착 숙소배정 점심식사	등 지 등	82	
14:00~	열림마당(하늘맞이굿)	운 동 장	82	고사상차림, 차전, 대고
16:00~	우리예술알기마당1	강당 및 운동장	82	풍물악기(북, 장고, 팽가리, 징), 깃발
18:00~	저녁식사			
19:00~	만나서 반가워요 - 만남의 시간 - 분임별 축제준비	강 당	82	방송시설 혼례가마
21:30~	정리시간			
22:00~	취침시간			

<표 II-3>

제2일(8월2일 금요일)

시 간	활 동 내 용	장 소	활동인원	준 비 물
06:00~	기상/기천체조	잔디광장	82	
07:00~	아침식사			
08:00~	우리문화체험마당1 - 팔도민속놀이마당	운 동 장	82	널뛰기, 투호, 게줄다리기, 지네발줄다리기, 들돌, 줄넘기줄
10:00~	우리문화체험마당 - 우리먹거리잔치	운 동 장	82	가마솥,소쿠리, 도마,칼,뚝자리, 떡판,맷돌,화로, 콩국수재료, 된장찌개재료, 호박쌈재료, 화채재료, 떡재료, 부침개재료 등
14:00~	신나는 물놀이	실외풀장	82	수영복, 무전기, 확성기
16:00~	우리예술알기마당2 - 풍물, 탈춤, 기천, 강강수월래	강당 및 운동장	82	풍물악기(북,장 고,팽가리,징), 깃발
17:00~	축제준비	운 동 장	82	병풍, 혼례상, 뚝자리, 가마 혼례상차림재료, 풍물악기, 기, 햇불 등
18:00~	저녁식사			
19:00~	한마음어울축제 - 전통혼례	운 동 장	82	방송시설, 병풍, 혼례상, 뚝자리, 가마 혼례상차림재료, 풍물악기, 기, 햇불 등
21:30~	정리시간/설문,감상문작성			
22:00~	취침시간			

<표 II-4>

제3일(8월 3일 토요일)

시 간	활 동 내 용	장 소	활동인원	준 비 물
06:00~	기상/기천체조	운 동 장	82	
07:00~	아침식사			
08:00~	짐정리/퇴소식	강 당	82	방송시설
09:30~	수련원출발		82	버스
10:30~	통일전망대 도착/관람	통일전망대	82	쌍안경
11:30~	점심식사			
12:00~	기념식수 및 염원돌올림		82	은행나무 염원돌
13:00~	기념촬영			
13:10~	고향 앞으로			

3) 주요 활동

가. 열림마당(하늘맞이굿)

① 목 적

- 청소년들이 직접 모두 함께 상징물을 제작하는 활동을 통하여 협동심을 기른다.
- 대동성을 바탕으로 대동제의를 진행하여 청소년다운 진취적 기상과 민족화합의 염원을 모은다.

② 활동일시

- 1996. 8. 1. 14:00~16:00

③ 활동장소

○ 운동장

④ 참가인원

○ 청소년 82명, 지도자 20명

⑤ 필요장비 및 시설

○ 음향장치, 차전재료, 당산재료, 대고

<표 II-5>

열림마당 활동내용

구 분	항 목	시 간	내 용	비 고
앞풀이	벽트기의식 (차전힘모으기)	14:00-14:30	- 사회자 여는말 - 동서로 편 나누기와 힘 모두는 어루기 - 동서로 나누어져 차전 제작 - 완성된 차전으로 대동 진풀이 벌이기 - 차전을 세워 어울마당 솟을대문 만들기 * 차전은 대결의 의미가 아닌 화합의 의미이며 어울마당 대문의 역할을 한다.	차전 재료

구분	항 목	시간	내 용	비 고
앞풀이	염원모듬의식 (당산대고 올리기)	14:30- 14:45	- 차전이 세워지면 무대중심으로 이동 - 사회자 당산대고 제작 의의를 설명 - 사회자의 지도에 따라 당산대고를 제작 - 당산대고가 완성되면 무대 정면에 당산을 설치하고 모두들 당산대고 주위에 둘러서서 당산제를 준비한다. * 당산대고는 산을 상징한다. 큰일이 있을 때 당산에서 제를 지내듯 염원의 상징인 당산대고에 민족화합염원의 당산제를 올린다.	당산재료 대고
	개 영 사	14:45- 14:55	- 모두들 둘러서고 행사장이 정돈되면 사회자는 본행사 시작을 알리는 멘트를 한다. - 개영사와 개영을 선언한다.	단 장
	강사소개	14:55- 15:05	- 개영사에 이어 사회자가 강사진을 소개한다. 1. 진행요원 2. 전문지도자 3. 보조지도자	
본마당	하늘맞이굿 (당산제)	15:05- 15:48	- 당산대고 타고(2분) - 사회자의 하늘맞이굿 열음 선언(1분) - 티빔이 품물굿(몽치예술단)(8분) - 싸리재춤(몽치예술단)(5분) - 향불올리기/땅술두르기(4분) - 비나리(제문) 낭독(3분) - 고사진행(모듬별 진행)(20분) - 소지(비나리문구를 태워 하늘로 올림)(2분))	학생대표 (남녀)선정 고사상차림 문구작성

나. 우리예술알기마당

① 목 적

- 청소년들이 우리의 노래와 악기, 춤 등을 연습하여 축제 때 시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것의 소중함을 알고 흥미를 느끼게 한다.

② 활동일시

- 1996. 8. 1. 16:00~18:00
- 1996. 8. 2. 16:00~17:30

③ 활동장소

- 운동장 및 강당

④ 참가인원

- 청소년 82명, 지도자 20명

⑤ 필요장비 및 시설

- 북, 장고, 징, 팽과리, 깃발, 음향장치

⑥ 활동내용

가) 풍물(<표 II-6>)

구 분	내 용	비 고
첫째날	- 풍물의 기원과 역사 - 악기별 특징과 기본타법 - 장단익히기 : 이채(휘모리), 삼채(자진모리), 칠채, 인사굿	
둘째날	- 오금질 및 몸풀이 - 배운가락 엮어서 관 구성하기 - 서서 악기매기 - 가락치며 진풀이 하기 - 대동한마당	

나) 탈춤(<표 II-7>)

구 분	내 용	비 고
첫째날	- 탈춤이야기(기원과 역사) - 타령장단익히기 및 오금질 - 불림 배우기 - 춤사위익히기 - 만사위, 고래잡이, 다리돌기, 황소걸음 - 삼채춤 배우기	
둘째날	- 오금질 및 몸풀이 - 동작복습 - 춤사위익히기 - 외사위, 겹사위, 앓아외사위, 앓아겹사위 - 깨끼춤배우기 - 봉산탈춤사위 완성하기 - 대동한마당	

다) 기천(<표 II-8>)

구 분	내 용	비 고
첫째날	- 민족무예이야기 - 기천 기본동작 익히기 : 단배공 : 내가신장 : 반장	
둘째날	- 민족무예와 기천 - 동작복습 - 기천 기본동작 익히기 : 육합단공 - 검 기본기 익히기	

라) 강강수월래(<표 II-9>)

구 분	내 용	비 고
첫째날	- 강강수월래이야기(기원과 역사) - 강강수월래 노래 및 기본동작 익히기 - 춤사위 익히기 : 원무, 청어엮기, 덕석몰이, 대문열기, 기와밟기 - 민요배우기 : 개고리타령	
둘째날	- 동작복습 - 춤사위익히기 : 남생이놀이, 고사리꺾기, 수벽치기, 꼬리잡기 - 민요배우기 : 산도깨비 - 강강수월래 완성하기 - 대동한마당	

다. 팔도민속놀이한마당

① 목 적

- 팔도 각지역마다 내려오던 대표적인 민속놀이들을 직접 제작해서 실행해 보는 시간으로 여럿의 힘을 모아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놀이를 통해 공동체의 큰힘을 느낄 수 있게 한다.

② 활동일시

- 1996. 8. 2. 08:00~10:00

③ 활동장소

- 운동장

④ 참가인원

- 청소년 82명, 지도자 20명

⑤ 필요장비 및 시설

- 갓발만들기(기세배), 재줄다리기, 지네발줄다리기, 널뛰기, 단심줄, 비석치기, 들돌, 당산박 재료

- 공구, 철사, 나무, 새끼줄 등 물품제작에 필요한 장비

<표 II-10>

팔도민속놀이한마당 활동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진 행	- 우리의 대동민속놀이에 대한 강의 - 모둠별 과제 제시 : 모둠별로 1개씩 민속놀이기구 제작 * 놀이방식도 익힌다 - 모든 놀이기구가 완성되면 제작한 조가 주축이 되어 모두 함께 민속놀이를 진행한다.	

라. 우리먹거리 잔치

① 목 적

- 인스턴트 음식문화에 익숙한 청소년들에게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우리의 먹거리를 직접 만들어 먹게 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슬기와 우리 민족 고유의 맛에 대해 느낄 수 있게 한다.

② 활동일시

- 1996. 8. 2. 10:00~14:00

③ 활동장소

- 운동장

④ 참가인원

- 청소년 82명, 지도자 20명

⑤ 필요장비 및 시설

- 메뉴: 국수, 부침개, 떡, 가마솥밥, 냉국, 화채, 김치 등
- 위에 필요한 음식재료와 도구

구 분	내 용	비 고
진 행	- 음식재료를 다양하게 제시, 모듬별로 선택해서 음식을 만들어 보도록 한다. - 만들어진 음식은 모두가 나눠 먹을 수 있도록 부페식으로 차려놓는다 - 가장 정갈하게 만든팀, 맛있게 만든 팀을 뽑는다. - 식사시간 전에 배치하여 자연스럽게 식사와 이어지게 한다. - 먹기 힘든 음식은 먹기대회로 소화시킨다.	

마. 한마음 어울축제

① 목 적

- 활동기간중 익혀온 풍물, 탈춤, 기천, 강강수월래를 시연함으로써 성취감과 우리 문화에 대한 애착심을 고양할 수 있는 계기를 갖는다.
- 전통혼례과정에 다양하게 참여해봄으로써 우리문화의 소중함과 팔도 청소년들이 하나가 됨을 느끼게 한다.

② 활동일시

- 1996. 8. 2. 17:00~21:30

③ 활동장소

- 운동장

④ 참가인원

- 청소년 82명, 지도자 20명

⑤ 필요장비 및 시설

- 방송시설, 병풍, 혼례상, 돗자리, 가마, 혼례상차림재료, 풍물악기, 기, 췌블 등

<표 II-12>

한마음 어울축제 활동내용

	구 분	순 서	내 용	비 고
식전행사	앞풀이	팔도어울 혼례행렬길 놀이	어울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프로그램 모둠마다 각각 역할에 맞게 신명난 혼례 행렬 길놀이를 진행한다. 행렬은 오색 혼 례축기들이 앞서면, 뒤를 이어 풍물패가 대열을 이루고, 그 뒤를 신랑각시의 가마 행렬이 따른다. 함진애비 행렬은 익살스러운 재담과 허튼 춤으로 잔치분위기를 더욱 흥겹게 살린다.	
본 행 사	혼 려 앞마당	개막선언	한마음 어울축제의 시작을 힘차게 선언한다	사회자
		덕담풀이 풍물판굿	혼례청을 다지고 님을 맞이할 길을 닦아 낸다는 의미의 풍물공연으로 구수한 덕담 이 혼례판을 풍성히 채운다.	풍물 배움팀
		꽃불밝힘	혼례청에 불을 밝히는 의식으로 꽃불을 피워올려 천신을 감화케 하는 의식이다.	대표
		땅술두르기	혼례청에 마련된 모사기에 술을 세 번 나 누어 붓는 철차. 땅속에 술을 흘려내려 지 신을 감화케 하는 의식이다.	대표
	혼 려 본마당	오작교다리 잇기(신랑신 부들어섬)	모든 부정을 끌어내고 정갈히 닦아낸 혼 례청에 신랑 신부가 들어서는 의식. 동서패가 등과 등을 이어 다리를 만들어 신랑신부를 혼례청까지 이동시킨다.	
		손씻이 (세 례)	신랑 신부가 손을 씻는 의식. 노동하는 사람의 가장 소중한 부분인 손 을 씻음으로써 본혼례에 앞서 심신을 깨 끗이 한다라는 의미를 담는다.	
		맞 절 (교배례)	신랑 신부가 가장 큰 예를 갖추어 세 번 서로 절을 나눈다.	
		잔나눔 (합근례)	공경의 마음을 담은 술 한 잔씩을 상대방에게 올리고 나서 서로의 술을 섞어 만든 화합의 술을 나누어 마신다.	
		비나리	팔도 청소년의 하나됨을 기원하는 축시낭 독 모두의 염원과 결의를 우렁차게 읊는다	

본 행 사	혼례 축하마당	혼례축하마당	축하의 마음을 담아낸 공연들을 진행한다. 수련기간동안 배운것들 뿐만아니라 평소에 가지고 있던 숨은 재주들도 선보인다.	모듬별 공연준비 유도
		감사의례	신랑신부가 수련동기들을 향해 사랑의 마음을 담아 큰 절을 올린다	
		함께부르는 노래	신랑신부와 참가자 모두가 함께 통일 된 마음을 노래로 부른다.(예:사랑으 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	곡선정
		신랑신부 마당나섬	팔도의 하나됨을 상징하는 신랑신부가 마당으로 나서면 모두들 팔과 조를 던 지며 축하의 마음을 나눈다.	
맺 음 행 사	대동 한마당	염원불올리기	내려선 신랑신부 준비된 점화봉을 잡 고 민족의 통일과 진정한 화합을 기원 하는 염원대에 불을 지핀다. 불이 붙으면 폭죽놀이 진행된다	
		대동단심무와 강강수월래	모든 참가자들 난장을 터 마당안에 동 글게 원을 만들고, 대동 강강수월래를 벌인다.	

바. 통일기행

① 목 적

- 21세기 한반도 통일의 주역인 청소년들로 하여금 우리 민족이 처해
있는 현실을 올바르게 직시하게 하여 한반도 통일의 역사적 소명을
스스로 깨닫게 함

② 활동일시

- 1996. 8. 3. 10:30~13:00

③ 활동장소

○ 통일전망대

④ 참가인원

○ 청소년 82명, 지도자 20명

⑤ 필요장비 및 시설

○ 노래악보, 은행나무, 염원돌, 쌍안경

<표 II-13>

통일기행 활동내용

구 분	항 목	시 간	내 용	비 고
통일 기행	통일전망대로	09:30-10:30	- 버스로 가는 도중 강사의 지도로 통일노래 배우기 진행	통일노래 악보준비
	통일맞이한 마당	10:30-12:00	- 버스에서 배운 통일노래에 맞춰 신나는 율동배우기(15분) - 전망대관람하기(30분) - 통일비둘기 날리기(모두 두눈을 감고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가 되어 북녘땅을 날아보는 상상해 보는 마당)(10분) - 통일꿈나무 심기(통일을 염원하며 암수가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은행나무를 심는다. 나무 옆에는 80명의 이름이 적힌 염원돌을 둔다.)(15분)	은행나무 이름새긴 염원돌

4) 진행 참고자료

가. 풍물

가) 풍물이란

풍물은 농사일을 하던 우리 조상들이 신력을 이용하기 위한 상징으로 농기, 영기, 용기 등 다양한 기를 사용하고 쇠, 징, 장고, 북 등의 타악기와 태평소, 나발 연주치배 뿐만 아니라 여러명의 잡색들이 극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있는 음악, 춤, 사설, 재담, 재주, 연극 등을 포괄하는 총체적 종합예술이

다.

풍물은 두레, 두레풍장, 굿, 금고, 절궁, 매구 등의 명칭으로 지역마다 불리웠고, 악기를 나타내는 명칭도 풍물, 굿물, 풍장, 군물 등으로 지역에 따라 다채롭다. 또 풍물연행은 굿친다, 절궁낸다, 매구친다, 풍장친다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지고 있다.

풍물은 치는 시기와 목적에 따라 마을의 안녕을 위하여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동제와 지신밟기, 판굿, 대동놀이 등으로 이루어지는 축원, 축제풍물, 노동능률을 향상시켜 주는 두레풍물, 절립을 목적으로 하는 절걸립패, 풍각장이패, 남사당패가 하는 풍물등 여러가지 모습으로 우리 민족의 삶과 함께 발전되었다.

나) 풍물의 기원

풍물의 최초 기원은 원시 공동체 사회의 제천행사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고대 우리나라에 관한 중국의 문헌이나 우리나라의 옛문헌들과 고분벽화나 불교유적 등에서 그 증거를 찾아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우선은 고대 한국에 관한 유일한 문서인 ‘삼국지 위지 동이전’을 들 수 있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 마한조에서는 ‘마한에서는 오월 파종이 끝나면 항상 귀신에게 제를 올렸다. 마을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주야로 쉬지 않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술과 음식을 먹었다. 그 춤은 여럿이 한 줄을 지어 몸을 구부리기도 하고 허리를 펴기도 하며 손과 발을 서로 맞추는 것이다. 절차는 마치 중국의 탁무와 비슷하였다. 10월 농사가 끝나도 그렇게 하였다’ 라는 기록이 있다.

또 ‘삼국지 위지 동이전’ 한조에는 ‘귀신을 몹시 믿어 고을마다 각각 한 사람을 뽑아 천신에게 지내는 제사를 주관하게 하였는데 이 사람을 천군이 라 불렀다. 또 이들 여러나라에는 각각 따로 읍이 있는데 이것을 소도라 하였으며 큰나무를 세우고 거기에 방울과 북을 걸어놓고 귀신을 섬겼다’ 라는 기록이 있다. 또 고구려전에는 ‘백성들이 가무를 즐겼으며 나라 안 촌락에서

는 저녁이면 남녀가 여럿이 모여 서로 노래하고 놀았다' 라는 기록이 있다.

이런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제의와 축제의 풍물굿의 기원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또 실제 유물들인 고구려 고분벽화나 신라 상원사 동종의 하대주악도, 감은사에서 출토된 청동제사리 기단에 새겨진 그림 등을 보면 장구 그림이 있다. 이런 것을 통해 보면 북의 기원은 최소한 원시 부족국가로 올라가고, 장구의 기원은 삼국시대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기록과 유물들을 통해 풍물의 기원은 원시 공동체 사회로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풍물의 모습이 주로 수도작농업이 발달한 지역인 경기, 충청, 전라, 경상도 평야지방을 중심으로 발달한 것으로 봤을 때, 조선후기의 농업생산력이 발달한 시기인 17-18세기의 풍물의 모습을 현재 풍물의 기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시의 두레 공동체는 풍물의 대동성과 집단성을 만든 모태였으며, 풍물은 두레 공동체를 강화한 원동력이었다. 상호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 두축을 중심으로 우리 조상들은 독특한 공동체문화를 형성하였다. 한편 이러한 풍물은 지역별로 독특한 개성들을 가지며 발전되어 왔는데,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이제는 점점 그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한편 조선후기 두레 공동체의 붕괴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풍물의 맥을 이어온 걸림풍물과 연예풍물인 남사당풍물도 지금의 풍물의 모습을 형성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다) 사물놀이란 무엇인가?

사물놀이는 1978년 경기, 충청지방을 중심으로 한 남사당패의 후예였던 4명(김덕수, 김용배, 이광수, 최종실)이 쇠, 징, 장고, 북의 네 악기를 가지고 앉은반 풍물가락을 연주한데서 시작되었다. 사물놀이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 까지도 유명해져서 흔히들 사물놀이가 풍물인 듯 생각하고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물놀이는 풍물의 판 짜임의 원리를

덩-더덩 덩덩 더덩 더덩

- 이채

쇠 : 켜 켜 재재켄 / 켜 켜 재재켄

징 : 징 / 징

장고 : 덩 덩 쿵따쿵 / 덩 덩 쿵따쿵

북 : 덩 덩 덩 덩 / 덩 덩 덩 덩

나. 우리 민속놀이 이야기

우리 조상들이 남긴 여러 문화유산 중 가장 생동감 있고 공동체 성격이 살아있는 민속문화를 민족문화의 구심이라고 한다면 그 민속문화의 정수는 바로 대동놀이라 할 수 있다.

고대의 제천의식으로부터 시작되어 변화, 발전해 온 우리의 민속유산은 기복의 제의적인 절차와 놀이적인 형태의 모습을 동시에 담고 있다. 논두렁이나 밭두렁에서 잠시 쉴 참을 이용하여 노는 간편한 놀이로부터 수백, 수천의 대규모 인원이 한데 어울리는 규모가 큰 집단놀이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을 살펴보면 효율적인 재생산을 위한 의식의 통일과 그 승화를 위한 예행의 요소가 뿌리깊이 깃들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놀이에는 규모가 큰 집단놀이 즉 줄다리기, 고싸움, 차전놀이, 쇠머리대기 등의 패싸움 놀이와 강강술래, 놋다리밟기, 지신밟기 등의 연희적 놀이로 나뉘 볼 수 있다. 패싸움 놀이들은 승부를 매개로 하면서도 서로 다시 승부를 초월하는 공동체의 확인 및 통일로 나아간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양편이 서로 혼신의 힘을 다해 겨룸으로써 함께 풍년을 맞을 수 있으리라는 신앙심과 단결심의 출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동놀이는 정월초에서 정월대보름까지 크게 행해지는데 두레 공동노동조직이 잘 발달된 지역과 일치하고 있다.

패싸움 놀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줄다리기의 경우를 보면 정초 집집마다 짚단을 모으고 가닥줄을 꼬는 일로부터 시작한다. 줄드리기에서 끝줄 만들기까지 진행된 후 대보름이 되면 줄다리는 장소로 줄이 나가게 된다.

양 진영의 줄이 모이면 줄다리기에 앞서 진잡이 놀이가 벌어지는데 힘센 장정들이 선두에서 어깨를 걸고 상대방을 밀어내는데 서로의 진지를 침입하는 실갱이를 하며 판가름을 지켜보는 가운데 하루 해가 저물면 비로소 줄을 걸기 시작한다. 이 줄걸기는 일종의 성적 유희로서 다산의 풍요를 비는 염원의 표현이다. 이어 혼신의 힘을 다해 줄다리기가 시작되며 천지가 울리는 함성과 함께 머릿줄과 몸줄이 공중으로 떠올라 팽팽히 맞서고 인간과 자연의 기가 합치되는 황홀한 통일의 경지, 중력에서 벗어나 무중력의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일본에서도 줄다리기를 하는데 우리와 비교해 보면, 일본 줄다리기는 승패에 집착해 승부가 빨리나는 반면 우리의 줄다리기는 적절한 힘의 안배와 집중을 통한 ‘힘의 공감대의 만끽’을 그 특징으로 하며 몇날을 두고 줄다리기를 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고싸움, 쇠머리대기 등의 놀이들 역시 줄다리기의 축약된 종목으로 보여지며 기싸움, 진잡이 놀이등과 함께 줄다리기에 앞서 놀았다고 한다.

대동놀이는 승부 자체 보다도 과정에서의 협동을 중시하고 생산에서의 갈등과 모순을 극복하여 재생산의 힘을 공동으로 확인하는 대동의 마당이였다.

이들 민속놀이들은 주로 농한기 때 치뤄졌는데 7대 명절중 정월의 놀이는 7할 정도를 차지했다. 이외에 5월 단오, 7월 백중놀이, 8월 한가위 등의 명절에도 신명난 민속놀이와 함께 대동굿을 펼쳤다.

우리의 민속놀이는 알려진 것만도 200여개가 넘는다. 그러나 모든 민속예술이 그러하듯 생성·전승되는 현장을 떠나게 되면 거기서 발휘되는 예술적 기능과 실제로 갖춘모습을 제대로 보기 어렵다. 날로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속에서 예전 모습 그대로의 민속놀이의 계승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어렵다. 그러나 참다운 의미의 계승이란 과거의 답습이 아니라 그 정신을 이어 현 시대의 요구에 걸맞게 새로운 형식을 재창조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고도로 산업화 된 사회에서 진정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새 활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할 것이다. 그 일은 바로 우리 청소년의 몫이다.

팔도 민속놀이마당에서는 팔도에 널리 퍼져 있던 민속놀이들을 한자리에 모아 직접 제작도 해보고 놀이도 해보는 시간이다. 투박하면서도 조상의 슬기가 담뿍 담겨있는 민속놀이를 직접 제작하면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잠재되어 있는 신명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옆 친구의 땀방울이 아름답게 느껴질 자리가 될 것이다.

다. 우리 먹거리 잔치

전세계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식생활의 형성은 농경사회의 정착과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한다. 먹을 것을 찾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던 생활에서 벗어나 농사의 원리를 알게 되고 이를 통해 소중한 음식을 거두어 들이게 되면서부터 우리의 음식 문화도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게 된 것이다.

조상을 모시는 제사상에는 신선한 음식을, 액을 쫓는 고사상에는 빨간색 음식과 소리나는 부럼을, 신랑신부의 화합을 축하하는 자리에는 팥이 등장한다. 우리의 조상 대대로 가장 중요한 생활을 차지하고 있었던 먹거리 문화는 비단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수단 이상으로 우리의 기쁨과 슬픔, 두려움과 희망을 모두 함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식문화, 식생활의 중요성은 오늘날에도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전통 가락인 풍물을 전혀 모르던 친구들도 삼채, 휘몰이 등의 가락을 배우고 나면 어깨춤이 절로 나고 몸 구석구석에서 신명이 마구 솟구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비단 풍물가락 하나가 그러할진데 수천년간 우리 땅의 기후, 우리의 입맛에 맞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네 체질에 맞게 이어져 내려온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 적은 지면에 다 적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친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현재 초등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피자, 가장 싫어하는 음식은 김치라고 한다. 피자에 콜라, 햄버거에 우유를 먹는 모습이 김치와 찌개에 흰밥보다 더 세련되고 현대적인 모습으로 비쳐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어찌면 몇십년이 지나서는 만화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알약 하나로 하루 세끼를 다 해결하는 일도 벌어질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뿌리를 찾는 일이다. 우리의 식생활이 어떻게 변한다고 해도, 우리의 문화가 어떻게 발전한다고 해도 그것은 모두 과거와 뿌리,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과거가 없는 현대와 세련됨은 없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뿌리를 한번 찾아 보자.

땀 뻘뻘 흘리며 불을 지피고 가마솥에 하얀 쌀밥을 지어보고 호박 송송 썰어 구수한 된장찌개도 만들어 보면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이 문화를 만들어 내고 우리에게 전해 주었는지 몸으로 느껴 보자.

한여름 더위에 지쳐 쓰러져 있는 소에게 된장 한웅큼 물에 풀어 먹이면 벌떡 일어난다고 한다. 된장찌개, 김치에 찰진 가마솥밥 한그릇 뚝딱 해치우고 이 여름도 이겨내고 같이 음식을 만들었던 친구들과의 우정도 탄탄히 쌓아가 보자.

라. 강강술래

○ 강강술래란?

강강술래는 주로 여성들이 즐겨 놀았던 겹춤(집단무용놀이)으로서 중요무형문화재 제 8호이다.

본래는 전라남도 남해안 일대와 도서지방에 널리 분포, 전승되었던 것이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볼 수가 있다. 또한 이 놀이는 8월 한가위의 밝은 달밤을 비롯하여 달밝은 밤에 여인네들이 놀았던 것인데 지금은 계절과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전국적인 규모로 전파되어 있다. 아마도 그 연원은 원시 공동체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으로 믿어진다.

강강술래의 유래에 대하여는 몇 가지 설이 있다. 우리나라 삼한시대 마한의 풍속에는 “...5월에 씨를 뿌리고 제사를 지낸다. 때를 지어 한데 모여 노래하고 춤추며 술을 마신다. 밤 낮 쉬지를 않고 수십명이 함께 춤을 추는데 다같이 일어나 서로 따르며 장단에 따라 손 발을 맞추며 몸을 낮췄다 높였다 하면서 땅을 밟는다”

이는 이미 기원전 3-4세기에 오늘의 강강술래의 선행예능으로 볼 수 있

는 ‘겹춤놀이’가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훨씬 후의 일이지만 임진왜란 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의병술과 관련된 이야기도 전한다. 이로써 짐작해 보건데 강강술래는 고대 농경시대의 파종과 수확 때의 춤을 추던 놀이형태가 계속 이어져 점차 오늘의 강강술래와 같은 모습으로 발전되어 오다가 임진왜란 때 충무공이 이 놀이를 의병술로 이용하여 왜적을 물리친 후 세상에 널리 알려져 당시의 격전지였던 전라남도 남해안 일대에서 성행되어 온 것으로 추측된다.

강강술래의 어원을 살펴보기로 하자.

강강술래를 일명 강강수월래(强羌水越來, 江江水越來)로도 부르는데 그 뜻풀이가 재미있다. 앞의 강강(强羌)은 <강한 오랑캐가 물을 건너 온다>로, 뒤의 강강(江江)은 역시 임진왜란과 관련시켜 <물 건너 온다>로 해석하고 있다. 일부 한학자나 일제 강점시기 식민지 민속학자들이 한자로 ‘강강수월래’라 했지 일반은 ‘강강술래’로 통용했다. 강강술래는 순수한 우리말이니 <강강>은 전라도 지방의 사투리로 ‘원(둥글다는 뜻)’을 뜻하는 <감감>의 후음이며, 술래는 수레, 순유(巡遊), 순라(巡羅)에서 나왔다는 설득력 있는 의견도 있다.

이제 이 놀이가 가지는 특성에 대해 알아보자.

이 놀이는 ‘선소리꾼’이 앞소리를 메기면 놀이꾼들은 일제히 강강술래로 받으니 ‘노래놀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춤추며 진행되는 것이니 이른바 ‘악가무(樂歌舞)’를 함께 하는 짜임새이다. 그리고 놀이의 대형에 따라 ‘꺾고’, ‘엮고’, ‘풀고’, ‘밟고’... 서로 몸과 마음이 하나로 어울리지 않으면 뒤죽박죽 엉키고 말 놀이가 기묘하게도 큰 마당을 흐르듯이 누빈다. 감고, 풀고 다시 감았다가 큰 하나의 원으로 풀어 돌아가면서 둥근 원은 더욱 커져만 간다. 강강술래의 결정적인 대목은 바로 이 순간이다. 고르지 못한 들판에서 수십명이 손에 손을 잡고 돌아가는데 넘어지는 사람 하나 없다. 손과 손은 서로 붙어 있거나 한듯이 돌아간다. 온 몸에 땀이 흐르고 손 바닥도

땀으로 미끄럽건만 마음이 하나로 돌아가다 보니 거대한 하나의 원이 살아서 돌고 있다. ‘나’와 ‘너’가 아닌 ‘우리’의 놀이판이 바로 강강술래이다.

- 굿거리 (원래는 중모리 혹은 진양조)

원무 (긴 강강술래)

강강술래	강강술래
달떠온다 달떠온다	강강술래
동해동천 달떠온다	강강술래
달아달아 밝은달아	강강술래
우리마을 비춘달아	강강술래
우리친구 어딜가고	강강술래
저달뜬줄 왜모르나	강강술래

- 삼채

원무 (짧은 강강술래)

강강술래	강강술래
뛰어보세 뛰어나 보세	강강술래
옥신옥신 뛰어나 보세	강강술래
높은마당 깊어지고	강강술래
깊은마당 높아나지게	강강술래
먼뎃사람 듣기가 좋고	강강술래
곁엿사람 보거나 좋게	강강술래
날이 좋다고 날맞이놀면	강강술래
달이 좋다고 달맞이놀까	강강술래

개골 타령

개골 개골 방죽간에 왕개골
왕개골을 찾을라면 양식먹고 댕돈 받고
양풀을 푹푹 걷고 미나리 방죽만 더듬어라.
에헥 에헥 에헥 나 에헥 얼라디야.

개고리를 뒹하러 잡나
조아덜 자래진데 다려멕일라고 잡는다.
뒷동산 고목나무 까마구 집을 지어서
석자치 거동을 봐라 쇠망치 손에 들고 눈만 꾸벅여 잘 논다.
지장쌀 천절편 해놓고 막내딸 오기만 기다려

남생이 놀이

남생이는 거북이나 자라와 비슷하게 생겼고 흉내를 잘 낸다고 한다. 앞
소리꾼이 ‘남생아 놀아라’ 하고 앞소리를 하면 몇 사람이 원안으로 들어와
남생이 흉내를 내며 춤을 춘다.

남생아	놀아라	쫄래쫄래가 잘논다
남생아	놀아라	고구남생 놀아라
어화색이	저새기	고구남생 잘논다.

고사리 꺾자

‘고사리 대사리...’하는 앞소리에 따라 놀이가 시작된다. 모두 제자리에 원으로 앉고 맨 앞 사람이 일어나 자기 왼쪽 사람과 잡은 손 사이를 넘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한사람 한사람 계속 넘어간다. 인원이 많을 때는 군데 군데 끊어서 동시에 넘을 수 있게 한다. 넘을 때는 실수한 척 옆사람을 건드리고 넘기도 한다.

1. 고사리 대사리 꺾자. 유자퐁퐁 재미나 놈자 아장아장 벌이며
나무대사리 꺾자
2. 꺾자 꺾자
고사리 대사리 꺾자. 한라산 고사리 꺾어다가 우리 아배 반찬하세
3. 고사리 대사리 꺾자. 백두산 고사리 꺾어다가 우리 아배 반찬하세.
나무 대사리 꺾자.

수 벽 치 기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발치기 발치기 발로 친다고 발치기

청 어 엮 자

생선두릅을 엮듯이 엮어가면서 풍어를 기원하는 놀이이다. 맨 앞 사람이 왼쪽(오른쪽)사람과 잡은 손 밑으로 빠지면서 자기 몸을 엮어 계속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진행한다. 다 엮은 후에는 “청청 청어풀자”하고 앞소리를 하면서 지금까지의 역순으로 한다.

청청 청어 엮자 위도군산 청어엮자
청청 청어 풀자 위도군산 청어풀자

덕 석 물 자

명석을 말고 푸는 것처럼 풍물에서 달팽이처럼 만든다. 풀 때는 뒤쪽부터 풀어야 된다. 또 다른 방법은 앞 사람이 말뚝처럼 박히고 맨끝 사람부터 실타래 감듯 말아 들어가는 방법도 있다.

물자 물자 덕석 물자	비온다 덕석 물자
물자 물자 덕석 물자	늦은날이 갠개오리
비야 비야 오지 마라	삼밭에 장구친다
물자물자 덕석 물자	비온다 덕석 물자
풀자풀자 덕석 풀자	별난다 덕석 풀자

대 문 열 기

문지기 문지기 문열어 주소 열쇠없어 못열겠네

기 와 밭 기

어덧골 기완가 전라도 기왓세
몇 닷냥 줬는가 스물 닷냥 줬네
어덧골 기완가 장자 장자골 기왓세.

문(문) 쥐새끼

문쥐새끼 찢룩찢룩 가사리 벗이여
잡었네 잡었네 문쥐새끼를 잡었네
콩하나 팥하나 땀 했더니 오곡 백곡이 절시구

원 무

강강술래		강강술래
술래술래가	술래야	강강술래
높은나무	앉은새는	강강술래
바람불까	수심이요	강강술래
삼대독자	외아들	강강술래
병이날까	수심이요	강강술래
동네방네	부자들	강강술래
도적들까	수심이요	강강술래

- 이후 긴 강강술래 (중모리 또는 굿거리)로 넘어가 끝내기도 한다.

마. 탈춤

가) 탈이 나오게 된 까닭 ?

탈은 종교의식에서부터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원시시대의 종교의식에서 사람은 탈과 춤이라는 이중의 주술로서 초인간적인 존재가 되고자 하였으며 따라서 종교적인 감정과 정서를 나타내고 강조하는 방법으로서 탈과 춤은 보편적이며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사람이 신의 탈을 쓰면 그는 이미 사람 이상의 존재인 신이 되고 죽은 이의 탈을 쓰면 그는 저승세계와의 중계자로서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사람이면서도 신이요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이 모순은 초인간

적인 신비성이며 탈이 갖는 주술성이다. 이렇게 주술적이던 탈이 훗날 연극에 쓰이게 된 뒤에도 이와 같은 이중성과 모순성의 동시적 존재성은 지속되어 왔다.

줄여서 말하자면 탈은 외부의 적이나 악령을 위협하기 위해서, 신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하여, 죽은 사람을 숭배함으로써 죽은 사람과 비슷해지기 위해서 토테미즘의 신앙에서 여러가지 동물로 가장하기 위한 것, 시늉 등에서 발생 까닭을 볼 수 있다.

나) 탈을 부르는 다른 이름

한자말 : 면, 도구, 가면, 대면, 가두, 가수, 광대

우리말 : 초라니, 탈, 탈박, 탈바가지

다) 봉산탈춤

(가) 발달

봉산은 황해도 중앙으로부터 약간 북쪽에 위치하는 군으로 동으로 서흥군, 남서쪽으로 재령군, 남동쪽으로 평산군, 북쪽으로 황주군에 접하고 북서쪽 일부는 재령강을 사이에 두고 안악군과 마주한다. 예로부터 해서의 각 지방에는 5일장이 서는 거의 모든 장터에서 한 해에 한 번씩은 탈춤놀이가 벌어졌는데 그 가운데서도 봉산은 남북을 잇는 유리한 지역적 조건 때문에 나라의 각종 사신을 맞는 행사가 잦았고, 또 지방의 농산물이 모여드는 중심지였기 때문에 더욱 탈춤놀이가 성행했다. 또한 약 200여 년 전에는 봉산에서 이속노릇을 하던 안초목이 전라남도 어느 섬에 유배되었다가 돌아온 뒤 나무탈을 종이탈로 바꾸는 등 많은 개혁을 이루어 놓았다고 한다.

그리하여 19세기 말부터 해서지방 탈춤의 대표적인 놀이로 발전하였다. 공연하는 때는 5월 단오날 밤에 시작하여 다음날 새벽까지인데 원래는 4월 초파일에 놀았다.

단오때 외에도 원님의 생신이나 원님이 부임하는 날, 사신의 영접, 탈 대회가 있을 때에도 연회 되었다. 장소는 봉산의 구읍인 경수대였으나 1915년 경 군청 등 행정기관이 사리원으로 옮겨지자 이 놀이판도 사리원 경암산 아

래로 옮겨졌다. 그때 놀이에 쓰인 비용은 지방의 유지나 상인들이 부담하였다. 오늘에 전하는 어느 탈춤보다도 오락성이 강한 이 봉산탈춤은 6.25 사변 이후 월남한 연희자들에 의해 이어지고 있으며, 1967년 중요무형문화재 제 17호로 지정되었다.

(나) 봉산탈춤 기본 춤사위

봉산탈춤 기본 춤사위는 12개 동작으로 짜여져 있다. 이는 봉산탈춤에서 각 배역들이 가장 많이 추는 춤사위를 뽑아서 엮은 것이다.

타령 장구장단

덩 닥기 덩 따 얼쑤 !!

ㄱ) 불림(낙양동천 이화정) (한 장단)

봉산탈춤에서 가장 기본적인 춤사위이다. 재담이 끝난 다음 춤을 추기 위하여 악사들에게 반주를 해달라는 신호로 춤을 춘다. “낙양동천 이화정” 또는 “흑운이만천 천불전” 등의 고사, 한시 구절을 읊으면서 시작한다. 두 발을 어깨넓이만큼 벌리고, 두 팔도 어깨넓이만큼 올려서, S자를 그리면서 내려오고 무릎을 구부리면서 팔이 내려온다.

ㄴ) 고개잡이① (두 장단)

(ㄱ) 한삼을 어깨 위에 얹고 두 손과 귀 사이에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한다. 허리를 오른쪽으로 틀어서 노를 젓듯이 무릎을 굽혀 고개를 숙인다.

(ㄴ) 몸에 가깝게 다시 끌어 올리면서 살짝(등-목-머리가 맨 나중에) 반동을 준다. 이것을 오른쪽 두번(한 장단), 왼쪽 두 번(한 장단) 한다. 오른쪽(반 장단), 왼쪽(반 장단) 으로 한번씩 더 한다.

ㄷ) 고개잡이② (한 장단)

고개잡이 ①과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반 장단), 왼쪽 (반 장단) 으로 한

번씩 더 한다.

ㄹ) 다리돌기 (두 장단)

마지막 고개잡이에서 앞을 본다.

손은 고개잡이 한대로 그냥 놔두고 (1) 오른쪽 다리를 약 90도로 두번 들고(상체를 반우향우 방향으로 틀어 주면서) 이 때 고개도 같이 흔들어 준다.(한 장단) (2) 왼쪽도 마찬가지로 한다.(한 장단)

ㄱ) 황소걸음 (두 장단)

다리돌기에서 마지막 장단에 왼발을 놓으면서 동시에 예비 몸짓으로 오른발 뒤꿈치를 왼발의 오금(무릎의 구부러지는 안쪽)에 붙인다. 고개도 같이 흔들어 주면서 어깨춤을 춘다.

(ㄱ) 오른발 오른쪽으로 왼쪽 다리를 오른쪽 오금에 붙인다.

(ㄴ) 왼발 왼쪽으로 오른쪽 다리를 오른쪽 오금에 붙인다.

(ㄷ) 오른발 오른쪽으로 왼쪽 다리를 오른쪽 오금에 붙인다.

(ㄹ) 왼발을 한걸음 앞으로 놓는다.

ㄴ) 불림 (한 장단)

1번 불림장단과 같은 방법으로 하며, 소리불림은 없이 동작으로 한다.

ㄷ) 외사위 (두 장단)

같은 발, 같은 손이 움직여야 된다.(두 장단)

오른발을 들고 오른손을 머리 뒤에서 앞으로 돌리면서 편다. 왼손은 자연스럽게 옆으로 편다. 왼쪽은 오른쪽과 동일하게 하며, 몸을 반우향우 반좌향좌 방향으로 돌면서 한다.

ㅇ) 겹사위 (두 장단)

(ㄱ) ①-④ 오른손을 앞에서 뒤로 반바퀴 돌렸다가, 이것을 다시 뒤에서 앞으로 한바퀴 풀어 준다. 이 때 발은 오른쪽으로 오른발을 들고,

정사방으로 뛰면서 한 장단에 360도로 돈다. (한 장단)

ㄱ) 양사위 (두 장단)

(ㄱ) 오른쪽을 향하여 두 손으로 겹사위를 하여 준다. 이 때 오른발을 든다. (한 장단)

(ㄴ) (ㄱ) 과 같으나 왼발을 들고 하여 준다.(한 장단)

ㄷ) 외사위 (한 장단)

ㄷ) 앉아 뛰기 외사위

(ㄱ) ① 앉는다.(두 팔 평행) ② 일어서면서 오른손으로 외사위 ③ 앉는다. ④ 일어서면서 왼손으로 외사위하며 180도 왼쪽으로 돈다.

(ㄴ) 뒤로 돌아선 상태에서 (1) 과 같이 하여 준다.

ㄹ) 앉아 뛰기 겹사위

(ㄱ) ①-④ 앉았다 (두 팔 평행) 일어서면서 겹사위를 하며, 오른쪽으로 먼저 돈다. 360도 돌아 제자리에 온 상태 (한 장단)

(ㄴ) (ㄱ) 을 왼쪽으로 한다.(한 장단)

2. 지원부문

1) 숙소

(1) 기본방향

- 남·녀별로 구분하되 청소년들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한다.
- 질서를 유지하여 청소년들이 충분한 휴식을 통하여 피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 숙소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정리, 정돈할 수 있도록 한다.
- 숙소별로 담당지도자를 배치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도와주도록 한다.

(2) 숙박기간 및 장소

- 8월 1일 ~ 3일 : 딱따구리수련원

(3) 숙소사용

- 동지동 전체 사용
- 청소년 : 남학생 큰방에 41인 배치, 여자는 2개의 방에 각각 20인, 21인씩 배치
- 지도자 : 여자 10명 별채 사용, 남자 동지동 1개 방에 10명 사용

2) 급식

(1) 기본방향

- 다양한 식단으로 운영하며 위생에 가장 주의한다.
- 배식은 self - service를 원칙으로 함
- 메뉴구성 기본방침
 - 영양가 및 열량 고려
 - 식단의 종류
 - 표준식단 : 공통 식단
 - 환자식단 : 팔도청소년어울마당 행사기간중 환자 발생시를 위한 식단
 - 간식 : 수련활동중 제공하는 간식

(2) 운영방법

○ 인 원 : 102명(청소년 82명, 지도자 20명)

○ 식사장소

- 1996년 8월 1일 점심식사부터 1996년 8월 3일 아침식사까지 딱따구리수련원 내의 식당 이용
- 1996년 8월 3일 점심식사는 통일전망대 식당 이용

○ 식사시간

- 아침 : 07 : 00 ~ 08 : 00 (60분)
- 점심 : 12 : 00 ~ 13 : 00 (60분)
- 저녁 : 18 : 00 ~ 19 : 00 (60분)

○ 급식방법

- 표준식단에 의한 self - service방식으로 급식

○ 위생

- 영양사와 협조하여 위생에 관한 전반사항을 점검

<표 II-14> 팔도청소년어울마당 식단표

	아 침 식 사	점 심 식 사	저 녁 식 사
첫 째 날		○ 하이라이스 ○ 과일사라다 ○ 요구르트 ○ 단무지 ○ 오뎅국	○ 우거지 된장국 ○ 닭튀김 ○ 고구마 맛탕 ○ 햄 구이 ○ 맛김 ○ 김치
둘 째 날	○ 소고기 미역국 ○ 오뎅소세지 야채볶음 ○ 계란말이 ○ 두부 양념구이 ○ 각뚜기	○ 짜장면 ○ 단무지 ○ 김치 ○ 과일 ○ 계란국	○ 콩나물국 ○ 떡볶이 ○ 햄 감자볶음 ○ 김치 ○ 꼬마돈까스
셋 째 날	○ 소고기 무우국 ○ 나물무침 ○ 만두 튀김 ○ 계란 찜 ○ 맛 김 ○ 김치	○ 돈까스	

3) 수 송

(1) 기본 방향

- 안전과 활동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 운송 차량은 충분히 확보하되 특히 장비의 수송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 차량은 출발 30분전에 도착하여 탑승하도록 한다
- 승차 인원은 40명을 기준으로 하며 차량당 전문지도자 1명과 보조지도자 2~3명을 배치하여 인솔하도록 한다
- 이동구간에 따라서 승차 명단을 변경함으로써 가능한한 여러 청소년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한다
- 각 차량에 배치된 지도자들은 인원의 파악 및 안전조치에 유의한다
- 차량간에는 무전을 통하여 상황을 계속 파악한다

(2) 인원수송

가. 참가자 수송

① 차량 소요

○ 차량 소요

- 승차인원 : 총 102명 (청소년 82명, 지도자 12명, 지원단 8명)

- 차량소요 : 버스 2대 - 1대당 40명 기준

봉고 1대 - 행사에 필요한 각종 물품 및 현지 행사지원용

자가용 2대 - 현지 행사 지원

② 차량운행일정

<표 II-15>

차량 운행 일정

구 분	차 량	일 자	이 동 로	비 고
서울→양주	버스 2대 봉고 1대	8. 1 (목)	서울(조흥은행 본사) → 의정부 → 양주 → 수련원	딱따구리 수련원
양주→서울	버스 2대 봉고 1대	8. 3 (토)	수련원 → 통일전망대 → 서울 (서울역, 고속버스터미널)	참가자의 편의를 최대고려

* 행사장에서 봉고와 자가용을 이용하여 활동 지원에 활용

③ 이동거리 및 소요시간 (차량이용시)

<표 II-16>

이동거리 및 소요시간

출 발 지	도 착 지	거 리	소 요 시 간
서 울	양 주	50~60 km	1시간 30분
양 주	통 일 전 망 대	20~30 km	1시간
통 일 전 망 대	서 울	50~60 km	1시간 30분

나. 장비 및 물품수송

- 장비와 물품은 활동 실시 1일 이전에 운반하며, 활동 종료후 곧바로 서울로 운반
- 장비 및 소모품은 차량을 임차하여 운반
- 장비 및 물품의 수송은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담당자의 책임 하에 이동

구 분	차 량	대 수	일 자	교 통 로
서울 ↔ 양주 (개발원) (수련원)	트 렉	1	7. 31(수)	서울(한국청소년개발원)
		1	8. 3(토)	→ 의정부 → 양주 → 수련원 역순으로 이동

4) 장비 및 물품

(1) 기본방향

- 활동의 효과 극대화에 주안점을 두고 장비 및 물품 조달과 관리 방법을 강구 한다.
- 장비 및 물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조달 방법을 세운다.
- 필요이상의 장비 및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며 손상되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장비 및 물품의 운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비 및 물품의 파악 및 분류
 - 장비 및 물품의 조달 계획 수립과 시장조사
 - 장비 및 물품의 구입, 임차와 검수
 - 지원장비 및 물품의 보관과 활용

(2) 종류와 조달방법

가. 종류

- 개인지급품 : 참가자에게 지원되는 물품
- 대여장비 및 물품 : 임차물품을 지정하여 무상·유상으로 대여하는 장비 및 물품
- 운영장비 및 물품 :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 사무용품 : 행사진행에 필요한 부서별 사무용 소모품

- 행사장비 및 물품 :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물품
- 수련활동장비 : 각 과정활동에 소요되는 진행장비

나. 조달방법

- 재 활용과 활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제작 및 구매가 필요한 장비 및 물품과 임차 장비 및 물품으로 구분한다.
- 불필요한 장비 및 물품을 구입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구입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되 활동의 효과를 기준으로 하여 필요한 물품은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한다.
- 제작·구매는
 - 국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 철저한 시장조사로 고가구매를 방지하며
 - 예산절감을 위하여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제품을 최대한 이용한다.
- 임차는 무료 임차와 유상 임차로 구분한다.
- 무료임차는 단체, 협회 등의 특수 장비나 딱따구리수련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자를 최대한 이용한다. 유상임차는 구매 물품중 계속적인 재 활용이 어려운 물품 중 임차가 가능한 경우에 임차한다.

다. 장비 및 물품의 관리와 활용

① 관리 방법

- 보관물자는 무단으로 반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며 화기에 주의한다.
- 각종 장비 및 물품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이동시 장비 파악이 용이하도록 한다.
- 장비 및 물품 현황부, 대출부 등 관리상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고 물자 관리자는 서류작성을 책임진다.

- 검사와 재고 조사가 용이하도록 배열하고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활용방법

- 각 활동 전문지도자 또는 보조지도자는 활동 전에 미리 자신이 담당하는 활동에 필요한 장비나 물품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청하도록 한다.
- 확보된 물자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장비 및 물품이나 부족한 물자는 장비 및 물품 책임자가 조속히 확보한다(신청시 : 품명, 규격, 수량, 사용활동을 정확히 기재).
- 모든 장비 및 물품의 지급은 관리서류에 기록을 함으로써 파악이 용이하도록 한다.
- 장비를 지급받은 경우 하자가 있을시는 즉시 시정조치 및 반납하며,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 장비 및 물품을 인수받은 지도자는 관리 및 반납의 책임을 진다.
- 각 활동지도자는 행사 및 활동 종료 즉시 반납한다.
- 반납한 장비 및 물품에 하자가 있을시 별도 조치한다.

라. 장비 및 물품 사후처리

- 행사에 사용된 물자 중 임차한 장비나 물품은 행사종료 후 가능한한 빠른 시간내에 반납한다.
- 사용한 장비 및 물품이 부득이한 사유로 파손 및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원반에 제출하고 지원반은 이를 조사 및 확인한다.
- 대여장비 및 물품이 분실 파손 되었을 시는 변상 조치한다.
- 대여 물자를 반환할 때는 파손여부를 확인하고 대여시 예치한 금액들중 대여료의 잔액을 정산 지불한다.
- 구매물자 중 사용물자 및 잔여 물품을 구분하여 한국청소년개발원에

보관하여 차후 수련활동에 사용한다.

- 행사 종료후 반환이 완료되는 즉시 20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마. 장비 및 물품 현황

① 반출

<표 II-18> 장비 및 물품 반출 현황

장 비 및 물 품	수 량	용 도
노트북 컴퓨터	1 대	기 록 정 리
프 린 터	1 대	기 록 인 쇄
앰 프	1 개	방 송

② 구입

<표 II-19> 장비 및 물품 구입 현황

프로그램(행사)명	세 부 품 목	비 고
콩국수 화채	국수, 콩가루, 적두(1되) 등 수박(4), 참외(25), 사과(9), 배(9) 등	100인분 "
떡	찰쌀(2말), 백태(1말) 등	"
부침개, 된장찌개	감자, 호박, 고추, 된장, 양념류	"
가마솥밥	백미(5말), 가스 등	"
캠프화이어	분수불꽃탄, 석유 등	
차광막	차광막 등	
울림돌	기념돌 구매 및 조각	

③ 임 차

<표 II-20>

장비 임차 현황

장 비 품 목	세 부 품 목	비 고
풍 물 악 기	쇠, 징, 장고, 북 등	50개 × 2일
민속놀이용품	널뛰기	1 조
	투호	4 조
	차전	2 개
	게줄다리기	1 개
	(새끼줄, 타이어)	
	지네발줄다리기	1 개
	발	20 개
대 고		1 개
조 리 기 구	가마솥 외	2 개
	솥 외	4 개
	소쿠리	25 개
	도마, 칼	25 개
캠프화이어	화 로	1 개
	햇 불	100 개
혼 례 집 기	병 풍	2 개
	혼례상	1 개
	돏자리	5 개
	혼례상차림재료	1 벌

5) 위생 및 안전

(1) 기본방향

- 양호실을 상설 운영하고 활동마다 안전요원과 비상대기차량을 배치한다.
- 인근병원과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보험가입 등으로 만약의 사태에 대

비한다.

- 활동내용 중에 응급처치를 넣어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매월 동시마다 안전에 주의하도록 한다.

(2) 의무

가. 양호실 운영

- 활동기간 중 간호요원과 구급약품을 비치한다(수련원 자체의 양호실 활용).
- 봉고를 환자후송용으로 항상 대기시킨다.
- 상해부위가 경미한 것은 간호요원이 치료하고, 간호요원의 판단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한다.
- 운영기간 : 1993. 8. 1(목) - 8. 3(토)
- 장소 : 딱따구리수련원
- 운영시간 : 08:00 - 18:00 (이외의 시간은 운영부에서 담당)

나. 후송병원

- 인근병원 : 연세정형외과(0351-42~8410)

다. 환자후송

- 양호실 진료가 불가능한 환자 발생시 후송한다.
- 환자후송시 행사준비단에서 동행한다.
- 환자의 상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환자의 가족과 연락하고 필요시 귀가시킨다.

(3) 야외안전

- 각종 야외활동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토록

한다.

- 사전준비운동을 철저히 실시한다.
- 해상활동이나 산악활동 등 야외활동시 위험지역을 사전 조사하여 위험표지 및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통제요원을 배치한다.
- 개별행동을 삼가하고 조별, 그룹별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구급낭 및 응급처치 능력이 있는 지도자를 반드시 배치한다.
- 응급차량을 반드시 배치한다.

6) 기록

(1) 기본방향

- 팔도청소년어울마당의 전과정을 문서, 사진, 비디오테이프 등으로 기록한다.
- 기록된 비디오테이프는 편집하여 청소년시설 및 단체에 보급한다.
- 모든 기록내용은 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 차후에 이루어지는 수련활동의 자료로 활용케 한다.

(2) 문서기록

- 활동기간중에 발생한 모든 기록을 종합

(3) 사진 및 슬라이드 제작

- 팔도청소년어울마당의 전과정을 사진으로 기록하여 활동별로 정리
- 홍보부 파견요원이 전담
- 기록된 사진은 앨범으로 제작하여 대외홍보에 사용

(4) 비디오테이프 제작

- 비디오는 자체적으로 촬영

- 팔도청소년어울마당의 전과정을 비디오테이프로 기록
- 기록된 비디오테이프는 편집하여 보관

8) 홍 보

(1) 기본방향

- 팔도청소년어울마당 사업의 목적과 의의를 주요언론 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함으로써 수련활동에 관한 국민의 인식전환과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언론사

-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주요 일간지, 방송사 등에 보도자료 제공

(3) 참가 청소년들의 부모

- 팔도청소년어울마당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부모들에게 안내장을 발송하여 행사의 의미 전달

III. 사 업 평 가

1. 설문조사 결과
2. 참가청소년 소감문 요약
3. 참가지도자 평가회의 결과

III. 사 업 평 가

1. 설문조사 결과

1) 조사개요

- (1) 조사 일시 : 1996. 8. 2. 22:00~23:00
- (2) 조사 장소 : 딱따구리수련원 숙소(등지동)
- (3) 조사 인원 : 82명(고등학교 1학년생)

<표 III-1> 설문 조사자 현황

(단위:명,%)

구 분		조사자	백분율
성 별	남 자	41	50.0
	여 자	41	50.0
계 열 별	인문계	57	69.5
	실업계	25	30.5

2) 조사결과

(1) 만족도

① 참가만족도

- 참가자의 75.6%가 팔도청소녀어울마당 참가에 대하여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 팔도청소년어울마당 참가 만족도

(단위:명,%)

구 분	응 답 자	백 분 율
매우유익	17	20.7
유 익 함	45	54.9
보 통 임	19	23.2
무 응 답	1	1.2
계	82	100.0

② 프로그램별 만족도

- 프로그램별 만족도는 ‘우리에술알기마당’이 7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만나서 반가워요’ 68.3%, ‘먹거리잔치’ 67.0%, ‘팔도민속놀이마당’ 59.7%, ‘한마음어울축제’ 55.9%, ‘하늘맞이굿’ 39.0%, ‘기천체조’ 32.9%의 순으로 나타났다.
- 이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불만족의 경우 10.0% 내외를 넘지 않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하늘맞이굿’과 ‘기천체조’가 39.0%, 32.9%로 각각 과반수를 넘지 못한 것은 ‘하늘맞이굿’의 경우 수련원에 입소해서 처음에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수련원 환경 및 다른 청소년들에 낯설고 날씨가 무더워서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기회가 적었던 데 그 원인이 크다고 보이며, 기천체조의 경우는 아침 일찍 시작하는 프로그램으로 수면부족 및 피로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여진다.

<표 III-3> 팔도청소년어울마당 프로그램별 만족도

(단위:명,%)

구 분	만 족 도						계(실수)
	무응답	매우만족	만 족	보 통	불 만	매우불만	
하늘맞이 곳	6.1	11.0	28.0	45.1	7.3	2.4	100.0 (82)
우리예술알기마당	3.7	40.2	39.0	13.4	1.2	2.4	100.0 (82)
만나서반가워요	4.9	25.6	42.7	22.0	3.7	1.2	100.0 (82)
기 천 체 조	4.9	12.2	20.7	48.8	8.5	4.9	100.0 (82)
팔도민속놀이마당	8.5	26.8	32.9	26.8	2.4	2.4	100.0 (82)
먹거리 잔치	6.1	40.2	26.8	24.4	1.2	1.2	100.0 (82)
한마음 어울축제	11.0	25.6	29.3	26.8	6.1	1.2	100.0 (82)

- 이러한 각각의 프로그램을 가장 재미있었던 프로그램의 순으로 열거하면 ‘우리먹거리잔치’가 28.0%로 가장 재미있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우리예술알기마당’ 26.8%, ‘만나서 반가워요’ 19.5%, ‘한마음어울축제’ 11.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4> 가장 재미있는 프로그램

(단위:명,%)

구 분	응 답 자	백 분 율
하늘맞이 곳	3	3.7
우리예술알기마당	22	26.8
만나서반가워요	16	19.5
기 천 체 조	1	1.2
팔도민속놀이	6	7.3
먹거리 잔치	23	28.0
한마음 어울축제	9	11.0
무 응 답	2	2.4
계	82	100.0

③ 시설 만족도

시설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에 비해서 만족도가 떨어져 시설에 만족하는 경우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숙박시설과 활동시설의 경우는 만족하는 경우가 불만족하는 경우보다 많지만 편의시설의 경우는 불만족하는 청소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활동을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표 III-5> 시설별 만족도

(단위:명,%)

구 분	무응답	매우만족	만 족	보 통	불 만	매우불만	계(실수)
숙박 시설	2.4	7.3	35.4	36.6	14.6	3.7	100.0 (82)
편의 시설	1.2	0	9.8	31.7	36.6	20.7	100.0 (82)
활동 시설	2.4	8.5	26.8	41.5	15.9	4.9	100.0 (82)

④ 식사 만족도

식사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경우가 32.9%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41.5%가 보통 정도로 응답해 그런대로 평균 정도의 식사가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 식사 만족도

(단위:명,%)

구 분	무응답	매우만족	만 족	보 통	불 만	매우불만	계
식 사	3	4	23	34	12	6	82
	3.7	4.9	28.0	41.5	14.6	7.3	100.0

⑤ 수련거리 운영 만족도

수련거리 운영에 대해서는 불만인 경우가 거의 없으며 58.6%가 만족하

는 것으로, 그리고 39.8%가 보통인 것으로 나타나, 수련거리 운영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7> 수련거리 운영 만족도

(단위:명,%)

구 분	무응답	매우만족	만 족	보 통	불 만	매우불만	계
수련거리	1	14	34	32	1	0	82
운 영	1.2	17.1	41.5	39.0	1.2	0.0	100.0

⑥ 지도자 만족도

지도자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79.3%가 만족하고 있었으며, 불만족하는 청소년은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 지도자 만족도

(단위:명,%)

구 분	무응답	매우만족	만 족	보 통	불 만	매우불만	계
지도자	2	26	39	13	1	1	82
	2.4	31.7	47.6	15.9	1.2	1.2	100.0

⑦ 활동기간 만족도

활동기간에 대하여 51.2%의 청소년이 짧다고 하였으며 35.4%가 적당하다고 하여 3박 4일이나 그 이상의 활동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9> 활동기간 만족도

(단위:명,%)

구 분	무응답	너무짧다	짧 다	적당하다	길 다	너무길다	계
활동기간	8	11	31	29	1	2	82
	9.8	13.4	37.8	35.4	1.2	2.4	100.0

(2) 유익한 점

- 어울마당 참가를 통해 청소년들이 도움을 받은 것으로는 청소년들이 친구를 사귄 것을 가장 의미있는 것으로 응답했고(63.4%), 협동심배양이나 인내력배양 등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은 그 어떠한 의미보다도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친구의 만남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0> 팔도청소년어울마당의 유익한 점

(단위:명,%)

구 분	응 답 자	백 분 율
친 구 사 껌	52	63.4
협동심 배양	7	8.5
자신감 배양	3	3.7
인내력 배양	6	7.3
기 타	9	11.0
무 응 답	5	6.1
계	82	100.0

- 청소년들이 어울마당 활동 기간중에 사귄 친구수는 6~10명이 31.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0~15명(26.8%), 5명 이하(15.9%), 21명 이상(14.4%)의 순으로 나타나, 평균 1모듬의 인원인 10명 내외의 친구를 사귄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 활동기간중 사권 친구수

(단위:명,%)

구 분	응 답 자	백 분 율
5명 이하	13	15.9
6-10 명	26	31.7
10-15 명	22	26.8
16-20 명	6	7.3
21명 이상	12	14.6
무 응 답	3	3.7
계	82	100.0

(3) 개선사항

팔도청소년어울마당의 개선사항으로 식사, 편의시설의 개선을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다른 어느 것보다도 식사와 편의시설에서 낮게 나타난 것을 보아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사실인데, 식사, 편의시설의 개선은 우리나라 청소년 수련시설의 전반적인 질적인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III-12> 팔도청소년어울마당 개선사항

(단위:명,%)

구 분	응 답 자	백 분 율
식사, 편의시설개선	29	35.4
여유있는 시간편성	2	2.4
행사기간의 확대	5	6.1
체계적인 행사운영	8	9.8
청소년참여 프로그램확대	7	8.5
무 응 답	31	37.8
계	82	100.0

(4) 참가 희망 의사

향후 팔도청소년어울마당과 같은 행사를 진행할 경우에 참가할 의사가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는 참가하겠다는 청소년이 54.9%이고, 상황을 보아서 참가하겠다는 청소년은 32.9%로 전체 청소년중 87.8%의 많은 청소년들이 참가의사를 밝혀, 간접적으로 팔도청소년어울마당에 대하여 만족을 표시했다.

<표 III-13> 향후 팔도청소년어울마당 참가 의사

(단위:명,%)

구 분	응 답 자	백 분 율
참가함	45	54.9
상황을봐서참가	27	32.9
참가안함	1	1.2
잘 모르겠음	6	7.3
기 타	1	1.2
무 응 답	2	2.4
계	82	100.0

(5) 한국청소년개발원에 대한 희망, 의견

한국청소년개발원에 대하여 바라는 바를 자유롭게 기술하게 한 결과는 43.9%의 청소년만이 이에 응답하였는데, 이중 18.3%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외에 ‘기간의 연장’, ‘유사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 팔도청소년어울마당의 확대, 개발 등에 관련한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표 III-14>

한국청소년개발원에 대한 기대

(단위:명,%)

구 분	응 답 자	백 분 율
유사한 행사개최 확대	15	18.3
행사기간의 연장	4	4.9
유사한 프로그램 개발	3	3.7
좋은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	6	7.3
개최시설의 개선	3	3.7
참가청소년의 지속적만남 희망	1	1.2
어울마당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3	3.7
체계적인 행사운영	1	1.2
무 응 답	46	56.1
계	82	100.0

2. 참가청소년 소감문 요약

1) 조사개요

- (1) 조사 일시 : 1996. 8. 2. 22:00~23:00
- (2) 조사 장소 : 딱따구리수련원 숙소(등지동)
- (3) 조사 인원 : 82명(고등학교 1학년생)

2) 조사결과

(1) 참여하게 된 동기 (응답: 17명)

- 선생님의 추천 (7명)
- 친구의 권유 (4명)
- 부모님의 권유 (3명)
- 마음껏 즐기고 놀기위해 (2명)
- ‘산돌바 팔도청소년어울마당’이라는 제목에 설레임을 갖어서 (1명)

(2) 프로그램 (응답: 35명)

- 우리 민속의 여러가지를 느껴보고 직접 실습해 볼수있어 좋았다 (8명)
- 가장 인상적이었던 프로그램
 - ① 기천 (기천이란 신기한 체조를 통해 ‘기’라는 것을 배웠다) (3명)
 - ② 풍물놀이 (탈춤과 농악놀이) (4명)
 - ③ 전통혼례의식 (3명)
 - ④ 먹거리 마당 (어색한 친구들 끼리도 친해질수 있는 기회를 가짐)
(2명)

⑤ “만나서 반가워요”는 선생님이 너무 재미있게 진행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데 도움이 됨 (2명)

- 전체적으로 보아 재미있고 흥미롭고 유익했다 (5명)
- 강제적인 참여를 요구하지 않아 좋았다 (2명)
- 내용이 풍부했고 우리의 협동심을 원하는 것이 많아 좋았다 (2명)
- 계획적이고 짜임새 있어 편하게 참여할 수 있었다 (1명)
- 생각했던것 보다 재미없었다 (3명)

(3) 지도자에 대한 소감 (응답: 8명)

- 지도자 선생님들이 친절하고 상냥해 시간가는 줄 몰랐다 (5명)
- 엄격하지 않고 친형·누나처럼, 이웃집 아저씨·아줌마처럼 느껴져 편하고 좋았다 (2명)
- 청소년개발원에서 주최하는 만큼 청소년을 위해 애써주셨다 (1명)

(4) 수련시설 (응답: 16명)

- 화장실 및 샤워시설이 턱없이 부족했다 (4명)
- 자판기, 매점이용에 불편이 많았다 (4명)
- 식수 이용이 용이하지 않아 목이 말랐다 (2명)
- 식사가 최악이었다(1명)
- 침구도구가 지저분하여 매우 불편했다 (2명)
- 세면장이 깨끗하고 좋았다 (1명)
- 여태 가 본 수련시설 중 최고로 좋았다 (2명)

(5) 기간 (응답: 8명)

- 각 지방의 친구를 사귀기에는 짧은 기간이었다 (7명)
- 짧은 기간이었지만 오래 정들다 헤어지는 것보다 짧은 시간을 보내 해

어지는 것이 더 편한 것 같았다 (1명)

(6) 인상적이었던 점 (응답: 24명)

- 평소 접해볼 수 없었던 우리문화를 배우고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어 좋았다 (5명)
- 전국 각지에서 지방색을 띠고 참가한 학생의 모습이 생소하게 느껴졌으나, 마지막 행사에서는 이 모두가 하나로 모여져 조화로움을 보여줬다 (4명)
- 한국의 멋, 협동심(뜨거운 햇볕 아래서 하나가 되어 어울림, 땀흘린 만큼 보람을 느낌, 모르는 친구들 끼리도 서로 도와주는 모습은 참 진지하고 보기 좋음)을 알게 되어 기쁘다 (4명)
- 우리의 것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 (그냥 보기만 할 때는 지루하고 시끄러운 음악인줄 알았는데 직접 해보니 흥미났다) (3명)
- 내손과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냈다는 것이 뿌듯했다 (2명)
-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여러 지방의 사투리를 듣고 처음엔 생소하고 우습기도 했지만 계속 듣다 보니 친근감이 느껴졌고, 나중엔 나도 사투리를 쓰는 것 같았다 (2명)
- 모듬을 남녀 혼성으로 짰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1명)
- 굿판을 처음 봐서 흥미롭고 감동적이었다 (1명)
- 많은 친구들이 서울말을 쓰는 것을 보고 서울말에 정감을 느끼게 되었다 (1명)
- 학생들 위주로 학생의 편의를 위해 하루 일정을 융통성 있게 바꾸었다 (1명)

(7) 아쉬웠던 점 (응답: 11명)

- 2박 3일이란 기간이 너무 짧아 친구들 사귀기가 쉽지 않았다 (5명)
- 내가 적극적으로질 못해 친구를 사귀지 못한 것이 아쉽다 (2명)
- 계획적인 시간표에 의해 참여해야 했으므로 자유시간이 짧았다 (2명)
- 프로그램이 준비했던 것에 비해 충분히 이행되지 못한 것 같다 (1명)
- 남자친구는 많이 사귀었는데 여자 친구는 한명도 사귀지 못했다 (1명)

(8) 수련활동중 힘들었던 점 (응답: 8명)

- 날씨가 너무 더운데 밖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이 많았다 (3명)
- 41명이란 숫자가 한방을 쓰게 되어 덥고 산만했다 (2명)
- 나방, 모기등 벌레가 많았다 (2명)
- 선풍기 한대로 2박 3일을 지내게 되어 땀을 많이 흘렸다 (1명)

(9) 앞으로의 희망사항 (응답: 13명)

- 기간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 (5명)
- 숙소를 조금 작은 방에 몇몇씩만 사용할 수 있었음 좋겠다 (2명)
- 자유시간을 좀더 주었으면 (2명)
- 청소년개발원에서 이런 수련활동을 자주 개최했으면 한다 (2명)
- 민속적인 것과 외국적인 것을 함께 프로그램에 넣어주었으면 좋겠다 (1명)
- 좀 더 나은 식사를 할 수 있었으면 (1명)

(10) 기타 (응답: 8명)

- 다음에 이런 행사가 있으면 다시 참여하고 싶다 (5명)
- 진지하고 열심히 하는 지방 친구들에게서 배울점이 많았다 (2명)
- 이성에 대한 막연한 거리감이 있었는데 이번 행사로 해소됨 (1명)

3. 참가지도자 평가회의 결과

1) 개요

- (1) 일 시 : 1996년 8월 27일 10:30 ~ 13:00
- (2) 장 소 : 한국청소년개발원 405호
- (3) 참 가 자 : 12명(진행요원, 전문지도자, 보조지도자)

2) 회의 결과

(1) 문제점

- 청소년 참가자가 계획대로 전 지역에서 고르게 안배되지 못했다.
- 중간지점에서 실시하지 못하고 경기도에서 실시해 먼 지역에서 오는 청소년들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했다.
- 수련원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지 못해 시설사용 및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 청소년들에게 편안한 숙박시설을 제공하지 못했다.
- 폭염으로 인해 의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 지도자의 미숙한 운영이 일부 있었다.

(2) 개선점

-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 충분한 예행연습을 통하여 현지 여건에 맞는 일정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수련원과의 프로그램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충분한 협조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 청소년들의 신변정리와 공동생활의 예절이 수련활동의 기본이 됨을 반드시 숙지시킬 필요가 있다.

IV. 결 론 및 제 언

1. 결 론

2. 제 언

IV. 결론 및 제언

1. 결 론

청소년에 대한 설문조사와 소감문 작성, 그리고 참가지도자의 평가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팔도청소년어울마당에 대하여 청소년, 지도자, 프로그램, 시설 및 환경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결론을 제시하였다.

(1) 청소년

- 청소년들의 팔도 지역 청소년으로의 다양한 구성은 청소년들 상호간에 사용하는 사투리나 태도 등에 있어 호기심을 자극하여 프로그램을 흥미롭게 진행하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 그러나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강원도 등 원거리 지역 청소년의 참여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서울, 경기지역에 많은 안배가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시기적으로 청소년폭력 등이 사회문제화되어 청소년참여에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었는데, 보다 철저한 계획과 배려를 통하여 청소년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지도자

- 지도자들의 친절한 지도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인상을 준 것으로 보인다.
- 청소년지도학을 전공한 보조지도자의 활용은 프로그램을 훨씬 수월하게 운영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 다양한 기능을 소유한 전문지도자의 활용은 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3) 프로그램

- 전통혼례라는 주제를 갖고 전통수련거리로 일관되게 운영된 본 활동은 사물이나 민속놀이 등을 나열하는 기존의 전통프로그램과는 구별되는 매우 의미있는 내용이었다고 보여진다.
- 2박 3일이라는 행사 기간은 청소년들 상호간에 서로를 알게 하거나 프로그램을 여유있게 운영하기에는 너무 짧았으며 3박 4일이나 4박 5일 등의 기간이 좀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
-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적응은 빨라서 전통프로그램에 대한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활동이었다.

(4) 시설 및 환경

- 신축된 시설을 사용하였지만 우리나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취약성을 반영하듯 좁은 공간내의 많은 인원의 수용은 샤워실, 화장실 및 기타 부대시설 등을 부족하게 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소 불편함을 주었다.
- 우리나라 청소년수련시설 사정상 80명정도의 인원으로 독립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의 공동사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다른 참가자들의 방해를 받게 되었다. 앞으로 독자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는 자체 시설의 보유나 시설을 독자적으로 사용할 정도의 인원이 확보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제 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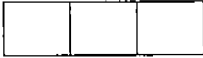
팔도청소년들의 화합의 장인 팔도청소년어울마당이 더욱 발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 몇가지 일들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 청소년수련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국민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일은 청소년 개개인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부모나 학교측의 협조를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런데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수련활동 참여를 어렵게 하여,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조차도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종종 나타난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전인적인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서 수련활동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때라고 보여진다.
- 팔도청소년의 활동참여에는 집결에서 귀가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배려를 필요로 한다. 교통, 생활, 위생, 안전 등의 철저한 대책마련은 부모나 청소년들이 안심하게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전통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개발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본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전통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전통적인 소재의 개발 여부에 따라서 좋은 프로그램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발견되었다. 그러나 전통프로그램하면 사물놀이라고 한정되게 생각하는 현재의 실정에 비추어 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에 더욱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수련활동시설은 아직도 수련활동을 운영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점이 많다. 활동장소와 숙박시설, 식사 등의 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을 운영자측에서 보면 경제적으로 많은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여건을 조성하는 일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한다. 이러한 악순환은 청소년수련활동의 질을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백년대계의 국가사업이라는 인식하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 록

1. '96 팔도청소년어울마당
참가 청소년 설문조사
2. '96 팔도청소년어울마당
참가자 소감문



1. '96 팔도청소년어울마당 참가 청소년 설문조사

부탁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96 팔도청소년어울마당이 무사히 끝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설문지는 여러분이 '96 청소년어울마당에 참가하면서 느꼈던 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은 다음 산들바 청소년어울마당에 반영되어 더욱 좋고 유익한 행사가 되도록 개선하는데 이용하게 됩니다.

이 설문지는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으며 응답내용은 컴퓨터로 통계처리되기 때문에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그러므로 아래의 응답요령을 반드시 읽어 보신 후 모든 문항에 대하여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러분이 더욱 건강하고 진취적인 젊은이로 성장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

* 응 답 요 령

1. 각 문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신의 의견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 하나에만 V표하여 주십시오.
2. () 안에 숫자로 응답하게 되어 있는 문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구체적인 숫자를 기재해 주십시오.
3. (의견: _____)에는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1996.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60 (137-130)

한 국 청 소 년 개 발 원

(담당자 : 02) 578-7926, 교류협력부)

[문 1] 성별은 ?

- ① 남 ② 여

[문 2] 다니는 학교는 ?

- ① 인문계고등학교 ② 실업계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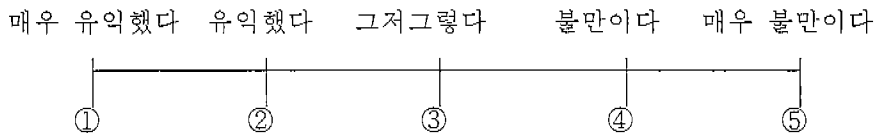
[문 3] 거주지역은 ?

- ① 서울경기지역 ② 강원지역 ③ 충청지역
④ 영남지역 ⑤ 호남지역 ⑥ 기타

[문 4] 이번 '96 산들바 괄도청소년어울마당에 참여하기 전에 이런 유형의 다른 수련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 4-1] 있다면 몇 번 ? (_____ 번)
 ② 없다

[문 5]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96 산들마 팔도청소년어울마당에 참여한 것이 유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6] 다음은 이번 '96 산들바 팔도청소년어울마당에 여러분이 참여했던 프로그램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했던 수련활동의 참가여부와 자신에게 해당하는 만족정도에 V표 하여 주십시오.

수 련 활 동 명	참 가 여 부	매우 만족 ①	만족 ②	보통 ③	불만 ④	매우 불만 ⑤
① 열음마당(하늘맞이굿)						
② 우리예술 - 풍물, 탈춤, 기천, 강강술래						
③ 만나서 반가워요 (전체만남의 시간)						
④ 민족무예 기천체조						
⑤ 우리문화체험 1. - 팔도민속놀이마당						
⑥ 우리문화체험 2. - 우리입거리염색마당						
⑦ 우리문화체험 3. - 우리먹거리잔치						
⑧ 한마음 어울잔치						
⑨ 통일기행						

[문 7] 위의 '96 산들바 팔도청소년어울마당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흥미있었던 것 한가지만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문 8] 다음은 이번 '96 산들바 팔도청소년어울마당의 여러가지 여건에 대한 느낌을 알아 보는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만족정도에 V표 하여 주십시오.

항 목	매우 만족 ①	만족 ②	보통 ③	불만 ④	매우 불만 ⑤	희망사항
○ 숙박시설(숙소, 화장실, 세면장)						
○ 편의시설(매점, 자판기, 공중전화)						
○ 활동시설(강당, 야외활동시설)						
○ 식사 (식사의 양, 종류, 맛)						
○ 프로그램(흥미도, 참여동기부여도 등)						
○ 활동지도자(태도, 자세, 기능 등)						
○ 활동기간	너무 짧다	짧다	적당 하다	길다	너무 길다	

- ① 새로운 친구를 사귄 수 있었다
- ② 협동심을 키울 수 있었다
- ③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다
- ④ 인내력을 키울 수 있었다
- ⑤ 기타 (_____)

① 5명 이하 ② 6 - 10명
③ 10 - 15명 ④ 16 - 20명 ⑤ 20명 이상

① 참가할 것이나 ②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
③ 참가하지 않을 것이다 ④ 잘 모르겠다
⑤ 기타 (_____)

***** 수고하셨습니다 *****

2. '96 팔도청소년어울마당 참가자 소감문

소감 1

몇번 와 본 수련회였지만 '96산들바 팔도청소년어울마당이라는 제목때문에 설레임을 갖고 수련장에 도착했다. 수련장으로 오는 버스에서 친구들이 자기소개 할때 '좋은 애들이다', '재미있고 활발한 친구들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저번 수련회에 갔을때에는 빨간 조끼에 빨간 모자를 쓰고, '교관'이라고 쓰여진 완장을 찬 교관들이 위시대면서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친형, 누나처럼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 같은 느낌에 정말 편하고 좋았다. 그리고 수련회에 올 때 많은 친구들이 서울말을 쓰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서울말에 정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친구들이 사용하는 서울말을 들으면서 나도 따라서 서울말을 배워서 서울말이 어색했지만 신기한듯 사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수련장에서 하는 행사들이 모두 평소 생활에서 접할수 없었던 그런 내용들이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고 보람도 있었다.

첫째날 밤에 친구들이 모두 대강당에 모여서 다양한 내용의 놀이에 협동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그리고 둘째날 오후 먹거리 마당을 할때 우리 8조는 된장찌개를 만들게 되었는데 감자를 깎고 썰고, 두부를 썰고, 파를 씻어오고 하는 모습에서 팔도에서 모여 서로 어색한 가운데서도 친한 친구들처럼 이야기하고 행동할때 기분이 좋았고 하는일에 보람도 있었다.

그리고 둘째날 저녁에 한 전통혼례식엔 가마꾼을 해서 조금 힘이 들었지만 처음보는 옛 결혼식 모습에 신기하기도 했다. 새 신랑, 신부는 마치 자기들이 진짜 결혼식을 하는양 웃고 좋아했는데 지켜보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였다. 그리고 결혼식 때의 탈춤과 농악놀이는 정말 흥겨웠다. 마지막 순서에
선 불꽃놀이를 한 후 춤 추면서 놀았는데 별로 재미 없었고, 내용이 너무
단순하고 지도교사들의 진행도 능숙하지 못했던 것 같다.

내일 아침 마지막 날의 수련활동이 기대된다.

소감 2

맨처음 담임 선생님께서 이 행사에 참여하라고 하셨을 때 두려움이 느껴졌다. 하지만 여러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여러 모르는 아이들과 어울렸다는 것이 매우 재미있었다. 여러 아이들과 만나면서 그 아이들의 독특한 생활방식이나 말투를 보니 매우 흥미가 있었다.

그리고 이 행사의 명칭이 “팔도청소년어울마당”인데 북쪽에 사는 아이들은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팔도라고 이름 붙인 것에 불만을 느낀다. 행사 자체는 매우 흥미있고 재미있었으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협동심을 키울수 있어 이런 행사가 자주 행해졌으면 좋겠다.

선생님들도 다 좋은 분들 이셨고, 특히 이런 행사에 참여하게 해 주신 청소년개발원 선생님들께 감사로 드린다.

소감 3

처음 이곳에 오기 전에는 많이 망설여졌다. 그 이유는 다른 학교에서, 그것도 각 도의 지방에서 많이 온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하지만 굳은 결심을 하고 ‘단신 경문고’를 마음속에 외치며 이곳에 온 나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어 적응하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둘째날이 되자 아는 친구들도 생겼고 이름은 몰라도 친하게 지낼수 있는 친구들이 생기자 하루만 더 연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프로그램이 너무 마음에 들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여러 프로그램 중 음식만들기가 제일 재미있었던 것 같다(집에서 많이 해 보았기 때문에). 오늘이 지방에서 온 친구들, 서울 친구들과 보내는 마지막 밤이기 때문에 매우 섭섭하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그리고 이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으면...

소감 4

우선 전국의 학생들이 모였기 때문에 무리가 많은 행사였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이번 팔도청소년어울마당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 행사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실망했던 일을 몇가지 적고 싶다. 다음에는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우리 후배들은 좀 더 나은 환경과 조건에서 무언가 얻어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1. 약속장소와 시간

먼 곳에서 오는 아이들은 정확한 시간에 모인다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걸 알지만, 그렇다고 나는 이유가 있으니까 늦어도 괜찮다는 식의 생각이 나를 실망시켰다.

2. 열악한 환경

더운데도 선풍기 한대로 2박을 지냈다고 생각하니 참 대단한 인내심이 아니었었나 싶다. 식사를 하면서도 땀을 흘려야 하는 것이 또 나를 실망시켰다.

그러나 학생들 위주로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하루 일정을 융통성있게 바꾼것은 좋은점이라 생각된다. 또 우리 것을 하나라도 배워갈 수 있게 되어 참 좋았다.

소감 5

나는 친구의 소개로 너무나 우연하게 이곳에 오게 되었다.

처음엔 기대하는 바도 많았지만 도착해서는 실망감도 컸다. 아이들이 그다지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갈수록 즐거워졌다. 탈춤도 배우고 기타 한국 고전과 관련된 것을 직접 해 보고 구경하는 과정에서 내가 한국인이라는 동질감을 느끼게 되었다. 전국에서 모인 친구들답게 대단했고, 무엇보다도 즐겁고 인상깊었던 것은 조를 남녀혼성으로 짰다는 것. 여러 캠프를 다녀 봤지만 혼성조는 처음이었다.

전반적으로 즐거웠던 것 같은데 좀 아쉬웠던 것은 너무 끼리끼리 어울렸던 것이다.

가장 인상깊었던 프로그램은 ‘기천체조’, 집에 가서도 꼭 계속하고 싶다. 전통혼례식도 못 잊을것 같다. 신부를 내려서 걷게 한 것도 재미있었다. 내가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하지 못해 좀 더 많은 친구를 사귀지 못해 아쉽지만 내 생애에 잊을수 없는 추억을 하나 만든 것 같다.
이런 기회가 또 주어지기를 빌며....

소감 6

처음 이곳에 왔을 때에는 그저 아무 생각없이 그냥 보충수업을 안 해도 된다는 이유에서 왔다. 그런데 막상 와 보니 생각이 바뀌었다. 많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수 있었고, 우리 문화를 조금이나마 실질적으로 느끼고 실감할 수 있었다.

내가 이곳에 와서 배운 것은 풍물이다. 풍물은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으나 기회가 주어지질 않아 못 배웠는데 이런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 비록 길지 않은 2박 3일 이었지만 좋은 추억이 되었던 것 같다. 앞으로 몇 시간만 있으면 이렇게 좋은 친구들과 헤어져야 한다. 짧은 시간이지만 정이 많이 들었나보다.

마지막 밤 이라서 인지 잠도 안 오고, 남은 시간동안 좋은 추억을 만들어 보고 싶다. 문득 허무하게 지나온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니 이런 글귀가 생각난다. “하는일 없이 보낸 오늘이,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었다”

앞으로 학교생활을 알차게 보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참 좋은 시간들 이었던 것 같다.

소감 7

처음 이곳에 오기 전에는 그냥 열심히 놀아야 겠다, 친구들이나 사귀자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우리의 음식과 놀이, 그러니까 우리 것을 배우면서 많은것을 느꼈다. 한국의 멋, 가락, 정신... 기천이란 체조를 통해 “기”라는 새로운 것도 접했다. 2박 3일 동안 배운 것, 느낀 것이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렵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까지의 느낌과는 달리 우리 것에 관해 자부심과 사랑을 느꼈다는 것이다

소감 8

처음 학교에서 추천이 되고, 약간은 설레이면서도 많은 걱정을 하였다. 무슨일이 있는건 아닌지, 또 학교에서 아는 아이는 하나 밖에 없어 걱정스런 마음으로 떠났다. 처음 조흥은행에서 아이들을 본 순간, 그래도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이름표를 봐 가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참 영광스러웠던 것은 나의 번호가 1번 이었다는 것이다. 처음 명찰을 받을때는 부담감도 많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뿌듯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많이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 관광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서먹서먹한 얼굴들을 보며 자기소개를 했다. 나는 그저 “여러분과 2박 3일 동안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

도착하자마자 숙소를 정하고, 첫 만남의 시간을 갖는데 정말 조금은 더 가까워 지는 듯 했다. 열심히 뛰고, 또 맛있는 식사를 하고난 다음날, 이제 정말 이곳 딱다구리 수련원에 왔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아침부터 일어나 기천체조를 배우는데, 맑은 공기 마시며 이슬내린 잔디의 땅을 밟으며 정말 상쾌했다. 또 잠깐 쉬고선 민속놀이 마당.

그런데 이때 우리 1조의 새끼줄이 안타깝게도 짧게 되었다. 그리고 줄다리를 할 때에는 내가 왜 참가했나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 거기다 패배까지 하였지만 당기느라 정신이 없어서 였는지 그리 감정이 상하진 않았다.

다음은 먹거리잔치. 우리 조는 콩국수를 만드는 조였다. 다른 조는 만들기를 다 끝내고 시식하러 왔다갔다 하는데, 왜 우리조는 맷돌에 그 많은 콩을 갈아야만 했는지.. 정말 그 시간은 맷돌 앞에서 보냈다. 별로 많이 먹지는 못했지만 화채, 빈대떡, 떡, 가마솥밥.. 보기만 해도 배 불렀다. 전통혼례식, 캠퍼아이어를 마치고 지금은 광란의 밤. 정말 밤을 새야겠다.

소감 9

뜻밖에 선생님의 추천으로 어울마당에 참가하게 되었다. 처음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간다고 한후 추천서를 보니까 우리나라 농악에 관한 것을 배우는것 같아 솔직히 가기 싫어졌다.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농악은 정말 듣기 싫어서 배우려 하지도 않았다. 명절때 장구치고 북치고 하면 거들며 보지도 않았고, 그 때마다 나는 “왜 나는 한국사람인데도 한국음악을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음악, 악기 등을 접할 기회가 없었던것 같다. 아니 일부러 그런 기회를 피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여기 8월1일날 처음와서 무섭게 노려보는 듯한 눈을 가진 언니가 자기감정에 푹 빠져서 굿을 하는 걸 보니까 나까지 그 굿하는 것에 빠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나도 이제는 징소리, 북소리가 좋아졌다.

소감 10

전반적인 진행과 행사활동은 괜찮은 편이었다. 특히 배움마당에서는 평소에 배우지 못했던 풍물놀이를 배우게 되어서 만족스러웠다. 그러나 준비한것은 많았는데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건 조금 아쉬웠다.

우리조 아이들은 전반적으로 얌전하고, 차분한 성격을 가진 학생들 같은 느낌이 들었다. 특히 마지막 어울마당에서는 그러한 점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지방색을 띠고 참가한 한명 한명의 모습은 내게 생소한 느낌을 들게했다. 그 하나 하나의 지방색들이 모여져 마지막에는 아름다운 무지개처럼 조화로움을 보여준 것 같다.

그리고 숙박시설과 여러가지 부대시설에 대해 말하고 싶다. 하나의 소강당에 41명이라는 많은 학생들을 수용소에 가두는 느낌이 돌 정도로 몰아넣은 것은 조금 아쉬웠다. 또한 자판기, 매점등 여러가지 부대시설은 거의 이용할 수가 없었다.